

국민 10명 중 6명 “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시민대표 설문 결과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더 내고 더 받는다’ 소득보장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은 22일 국회 소동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등 세 차례 실시했다. 세 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492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관련기사9면

국민연금보험료율및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안(2안) 지지율은 42.6%였다. 1안 지지율은 1차 설문에서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0%로 높아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1차 설문 59.1%였으나, 2차 70.5%, 3차 80.4%로 높아졌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출산크레디트 첫째 자녀까지 확대 및 자녀당 크레디트 부여 기간 2년(82.6%, 3차)’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492명 중 ‘소득보장안’ 선호 최대

80%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 기초연금 급여구조 현행유지 우세

선 52.3%가 국민·기초연금 급여구조·수급범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급여수준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민연금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줄이고 급여 수준을 차등해야 한다는 데에는 45.7%가 동의했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선 1차 설문에서 찬성률이 39.9%에 불과했으나, 2차 42.0%, 3차 45.7%로 높아졌다.

이밖에 시민대표단은 대체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지역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는 80.5%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5년 3개월’ 남은 기후재앙

국회사무처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간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관련기사 12면

비서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철호

윤석열 대통령이 3기 참모진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2기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관련기사 8면

윤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정 신임 비서실장과 홍 신임 정무수석의 인선 발표는 각각 오전, 오후에 이뤄졌다.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룸을 방문해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은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인선배경으로 ‘소통’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당의 많은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민생 현장 목소리도 잘 경청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같은 날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정무수석을 더 빨리 임명해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총리 인선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신임 정무수석 임명 발표 후 총리 인선 시기를 묻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알림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개최합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에 억눌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 전망도 ‘시계 제로’에 갇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투자자산을 분석하고 최선의 투자전략을 세운다면 지금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현지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는 조각투자자와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주식·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형준 테사 대표(미술품 조각투자를 넘어 STO)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지점장(글로벌 AI섹터에 투자하자) △김학렬 스마트튜브소장(2024년 부동산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부동산 시장 무엇이 중요한가) 등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투자 해법을 듣고 현명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제: 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

◇일 시: 4월 24일(수) 14:00~18:00

◇장 소: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3층)

◇주 최: 이투데이

주총 완패했지만… ‘개미 대변인’ 심은 행동주의

기업 밸류업·주주 행동주의 과제

지난달 주주총회 시늉을 뜨겁게 달궜던 행동주의펀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부분의 주주제안이 주총표대결에서 무릎을 꿇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내 및 사외이사’ 자리를 꿰찼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22일 본지가 2024년 정기주총 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으로 올라간 안건 99건 중 가결된 안건은 23건이었다. 10건 중 8건은 표대결에서 패배한 셈이다.

▶관련기사 5면

23건 중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건이 고작이었다.

엘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JB금융

주주제안 10건 중 8건 부결됐지만 JB금융 등 이사회 진입 성과 올려 “사측, 예전처럼 주주 무시 못할 것”

지주 주총에서 이희승·김기석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목표를 달성했다. 이로써 JB금융 이사회 구성원 11명 중 2명이 엘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트러스트자산운용도 태광산업 주총에서 추천한 김우진·안효성(이상 사외이사), 정안식(사내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태광산업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선임한 건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다음으로는 감사 선임이 5건으로 많았다. 감사 보수 한도와 결산 및 배당 관련 안건도 각각 2

건, 1건 등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행동주의펀드의 주주행동은 사실상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행동주의가 사측에 ‘소액주주의 목소리’란 중요한 신호를 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경영진에게 (주주의) 문제의식과 불만을 전달한 만큼 사측도 예전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행동주의펀드의 주주행동이 국내 주식시장의 메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방어권에 대한 고민도 남겼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지배주주 견제와 감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청룡, 빠른 건 알았는데… 넓은 공간·편의 시설에 깜짝”

현장 가보니

고속열차 ‘KTX-청룡’ 시승식

동력분산식 열차 내달 첫 운행
서울~부산 2시간10분대 주파
최대 1030석…전망·승차감 ↑

5월부터 서울~대전~동대구~부산역만 정차하는 급행 고속열차 ‘KTX-청룡’이 운행을 시작한다. 현재 운행하는 KTX-산전은 정차역에 따라 서울~부산이 3시간 넘게 걸리기도 한다. 정차역이 가장 적은 열차를 타면 2시간 36분이 가장 빠르다. KTX-청룡은 서울~부산을 2시간 17분 만에 주파한다. 진짜 고속열차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22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200명 대규모의 시승행사를 진행 중이다. 기자도 시승 첫날 오전 11시 19분 대전역을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린 ‘KTX-청룡’ 국민 시승행사에서 KTX-청룡이 승강장에 정차해 있다. 내달 1일 운행을 앞둔 ‘KTX-청룡’은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열차 이름은 운행이 시작되는 2024년 청룡의 해를 기념해 명명됐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출발하는 KTX-청룡을 타고 동대구역까지 시승했다. 안타깝게도 대전~동대구 구간은 정차역이 김천구미역밖에 없어 기존 KTX와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청룡은 동력분산식으로 개발됐다. 앞뒤 운전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차 6칸에도 모두 동력·제동 장치가 배치돼 있다는 뜻이다. 동력분산

식으로 돼 있어 300km/h 도달까지 소요 시간이 3분 32초로 기존 KTX(5분 16초) 대비 1분 44초 단축된다. 역 간 거리가 외국보다 가까운 국내 철도 환경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총 좌석 수도 515석으로 KTX-산전(379석)과 비교해 35% 늘어났다. 두 대를 연결해 복합열차로 운행하면 한 번에 1030명까지 탈 수 있다.

직접 타본 KTX-청룡 내부는 기존 KTX와 비교해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력분산식의 장점인 공간감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를 타다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 느낌과 비슷했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106→126mm, 20mm↑)과 객실 통로(450→604mm, 154mm↑)가 넓어졌다. 편의설비도 좌석마다 개별 창문

이 있어 각자 원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무선충전기와 A·C타입 USB포트도 설치돼 있다. 이날 타보지는 못했지만 우등실에는 객실 모니터 크기가 21.5인치(기존 19인치)로 시인성을 높였다고 한다. 대형 짐 수납공간도 안으로 들어왔다.

KTX-청룡에 대한 기대는 크다. 5월 1~19일 운행하는 KTX-청룡은 1만7884명이 예약해 예약률이 33.1%를 기록했다. 시승단 모집도 일찌감치 마감됐다. 다만 KTX-청룡을 보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5월부터 주중에는 경부고속선 2회, 호남고속선 2회만 운행하고 주말에는 두 대를 연결한 중련 운행 방식으로 경부고속선에 4회 투입한다.

청룡을 자주 보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평택~오송2복선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2대에서 17대까지 늘릴 계획이고 향후 더 확대한다. KTX-청룡은 320km/h까지 달릴 수 있으나 2027년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00km/h가 최대 속도인 점도 아쉽다.

대전=곽도훈 기자 soqood@

“알리·테무, 국내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 한 달 후 발표”

개인정보위 “유예 요청 수용 불가” 중국 기업에 ‘법령준수’ 강력주문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엄격한 준수를 고지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조속히 마치

고, 처분 결과를 한 달가량 후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베이징에서 알리익

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곳은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인터넷 기업 12곳이다.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기업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업 측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 그룹, 세정, 치안신그룹, 중국이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인터넷 기업인 쉬인과 화웨이, 샤오미 등



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유

예 기간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한국의 법, 제도, 문화를 간과했다.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다수의 참석 업체들이 수긍했다”고 설

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 달가량 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중국 정부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SA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통해 공식 조직으로 승격하며, 이 대표처를 통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국 개인정보 법령 준수 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새마을은행 및 차병은행, 농협,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출금리: 연평균 4.5% (대출금리 4.5% ~ 5.5%)

*의 용도는: 1. 생활자금, 2. 창업자금, 3. 경영자금, 4. 사업자금, 5. 교육자금, 6. 의료자금, 7. 주택자금, 8. 기타

*보증: 1. 중소기업중앙회, 2. 중소기업중앙회, 3.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중앙회, 6. 중소기업중앙회, 7.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 2. 중소기업중앙회, 3.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중앙회, 6. 중소기업중앙회, 7.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판 ‘마리나베이’·유니버설 투어… 규제 대못 뽑아달라”

(스튜디오)

대한상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중 66건은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규제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을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과 숙박, 휴양, 엔터테인먼트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시설지구 기준에는 복합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고, 상가 시설지구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지구 내부에 설치할 수 없어서다.

관광단지 단일용도로만 규정
복합문화시설·체험관광 한계

의료기 기술평가 200일 소요
미국·영국, 미리 상용화 가능

탄소 감축설비 효율 측정 비율
유엔 가이드라인의 두배 강제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과 같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복합시설 도입이 활성화된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는 신의료기기평가제도를 꼽았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대한상의 주요 건의 과제				건의과제 주요 업종	
구분	유형	과제수(건)	주요내용	구분	과제수(건)
킬러규제	입지	11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 등	제조	23
	진입	12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방식 개선 등	서비스	14
	신산업	13	주택용ESS설치기준 신설 등	바이오·헬스	14
	환경	8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등	유통·물류	14
	노동	14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	건설	10
민생규제		9	‘OO페이’(선불전자지급수단)한도 상향 노인복지주택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	금융	6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	신의료기기평가제도 정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기준 완화 등	기타	19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기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

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기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

율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5%이며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대의 감축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부터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해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양대마켓 게임 순위 (4월 22일 기준, 괄호 안은 게임사 국적)

※ 출처: 모바일인덱스

Google Play		App Store	
1위	라스트 워: 서바이벌(중국)	라스트 워: 서바이벌(중국)	
2위	리니지M(한국)	리니지M(한국)	
3위	버섯커 키우기(중국)	버섯커 키우기(중국)	
4위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중국)	EA SPORTS FC Online M(한국)	
5위	오딘: 발할라 라이징(한국)	FC 모바일(한국)	
6위	붕괴: 스타레일(중국)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중국)	

게임 뽑기 아이템 규제, 中 어부지리

시행 한달…게임사 9곳 시정 요청
중게임, 뽑기 확률 공개 안해도 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한국 게임사들에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정조준된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이용해 안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엔씨소프트와 웹젠 본사에 조서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 유저 1000여 명과 게임이용자협회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을 운영하면서 ‘슈퍼 계정’으로 고성능 아이템을 만들거나 다른 이용자를 공격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웹젠의 경우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했는데, 뽑기형 아이템의 확률이 149회까지는 0%로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냈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

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정보를 게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회색지대를 통해 안방을 사수하고 나섰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순위 1, 3, 4, 6위 등 상위권 대다수는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애플 앱스토어 역시 1, 3, 6위 등에 중국 게임이 올라와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기술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는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해외 게임사에는 해당 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논의될 때부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는 불거졌지만 결국 국내 게임사에만 규제 칼날이 휘둘러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역차별에 중국 게임사들에 안방을 내줄까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구자가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충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첨단 과학기술발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중 과학유공자를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사

“AI·반도체·첨단바이오·퀀텀 분야 R&D 예비조사 획기적으로 바꿀 것
韓 ‘퍼스트 무버’ 도전에 전폭지원”
과학기술 유공자 8명 훈·포장 수여

해결하는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여러분의 성취를 계승하고,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정보

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 유공자 105명,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훈장 34명, 포장 21명, 대통령 표창 45명, 국무총리표창 57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

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폴리 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특히 168건을 보유하고 있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거, 망 중립성, 규제 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덕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행사가 열린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 국립과학관으로,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영호 기자 choiyoungkr@

파바 이어 던킨도… ‘노조파괴 의혹’ 일파만파

SPC 부당노동행위 조사

민주노총 탈퇴강요 등 ‘판박이’
勞 “승진차별 등 조직적 불이익”
檢 노조 주장에 수사확대 주목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riba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 계열사비알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노조 측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수사 참고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앞서 경기도 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비알코리아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2021년 1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은 승진 대상자 20명 중 3명(15%), 한국노총은 승진 대상자 34명 중 30명(88%)이 승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한국노총을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이자 해당 생산라인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대표이사까지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 “거기(민주노총) 있는 순간 회사를 등진 것”이라거나, 생산팀장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진급시켜 줄 테니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말고 스카이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판정서에 담겨 있다.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동질의 군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평가 및 승진 결과에서 나타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는 부정적·차별적 의사를 갖고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법에 따른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파riba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방식이 똑같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

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전날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 대표, 서병배 전 대표 등 SPC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관계자 총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PC 자회사 파riba파트너즈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허 회장이 파riba게뜨 제빵기사만 집중해서 봤을 리는 없다”며 “화물연대 SPC지부 배송기사, 계열사 SPL, 비알코리아 모두 비슷하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와 차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양지청은 중앙지검의 수사에도 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 사건은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된 후 2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것이기도 하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추후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우크라·이스라엘 전쟁에 무장 강화 전 세계 군사비 3370兆 ‘역대 최대’

〈지난해〉

전년비 6.8%↑ 2009년 이후 최대 폭
리, 정부 총지출 16% 차지…韓 11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단위 : 조달러)

■ 아프리카 ■ 중동
■ 유럽 ■ 아시아·오세아니아 ■ 미주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전쟁 당사국뿐 아니라 무장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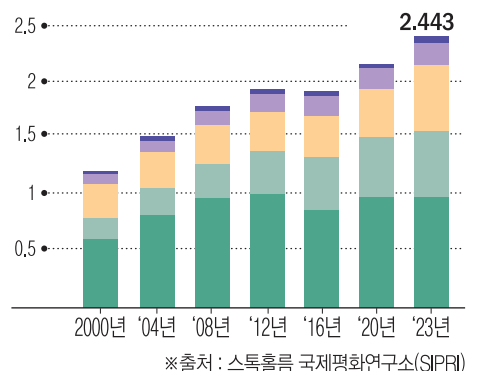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가 2조4430억 달러(약 3370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군사비 총액은 9년 연속 늘었으며, 이번이 역대 최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를 기록해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1위 미국이 2.3% 증가한 9160억 달러로 집계됐고 2위 중국은 6% 증가한 2960억 달러, 3위 러시아는 24% 늘어난 1090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러시아의 경우 군사비가 정부 총지출의 16%에 달했다. 비율은 구소련 해체 이후 가장 높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쟁 후 러시아 금융당국의 늘어난 불투명성으로 인해 집계 정확도가 낮다고 SIPRI는 설명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51% 증가한 648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랐다.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350억 달러를 더하면 러시아의 군사비에 상응하는 정도가 된다고 가디언은 부연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24% 증가한 2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출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난 티안 SIPRI 수석 연구원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군사비 지출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따른 것”이라며 “군사비 지출은 5개 대륙 모두에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 세계 1인당 군사비 지출도 306달러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위협이 아닌 자국 갱단과의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도 군사비를 늘렸다. 대표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은 군사비를 1년 새 무려 105% 늘렸고 남수단 군사비도 78% 늘어났다. 갱단과의 전쟁이 잦은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출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고 로페스 다 실바 SIPRI 연구원은 “정부가 내부 문제에 군대를 이용하는 추세가 이들 지역에서 수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479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했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준이다. 순위는 10위에서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11% 늘린 502억 달러로, 9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주총 반짝스타 아닌 기업 성장 돕는 파트너 돼야”

전문가가 본 ‘행동주의의 미래’

행동주의 펀드, 주주가치 높여
배당 인색하던 韓기업에 경종

주주제안 후 경영진 협의 늘어
장기적 지속 가능성 접근 필요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파이(이익)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다.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일 듯하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없애 뿐이다.”(중견 기업 대표 김모 씨)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동안 상정된 주주제안안건 99건 중 이사·감사 선임 안건이 5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적·일회성 요구에서 긴 호흡의 중장기 투자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성장을 위한 목소리보다 경영권 분쟁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많은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 경영이나 경영권 분쟁 등에 끼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파이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라며 행동주의펀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반짝 스타는 시장이 외면 = 3월 15일 열린 삼성물산 주총. 행동주의펀드의 검은 속내를 볼 수 있었다. 시티오브런던 등 5개 외국계 사모펀드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며 ‘울프 팩(wolf pack·늑대 무리처럼 여러 펀드가 뭉쳐 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 전략을 펼쳤다. 행동주의펀드의 요구대로라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투자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주

행동주의 펀드·밸류업 전문가 제언

주주가치 제고위해 세제 보완 필요	행동주의·밸류업 간 시너지 효과 기대	행동주의 주주제안, 일반주주들의 지지 필요	밸류업 위해서는 기업 실적부터 높아져야	밸류업 이전에 기업 체질개선·수익 증가 우선
				
김우진 서울대 교수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주에게 다 쥐버리는 셈이다. 소액주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배당안건에선 의결권 있는 주식의 77%, 자사주 매입안건에선 82%가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행동주의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에 빛과 그림자를 남겼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인색했던 한국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주 제안 이후 표 대결로 가지 않고, 사전에 경영진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된 건들이 많이 늘었다”며 “이런 면에서 행동주의가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행동주의펀드는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기업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는 꼬리표는 시시도 받는다.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이들이들을 외면한 데서 이를 짐작하게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행동주의펀드들은 주주 제안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액주주들과 공유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주주제안이라도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변화와 성장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총장이라는 싸움터에서 주목받는 반짝스타가 아닌, 기업과 오래 함께하는 친구를 주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여기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가 함께 누리며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기업과 동행할 때 주주가치도 빛난다 = 행동주의가 살아남을 방법은 뭘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업 성장(실적)과의 동행’을 외친다.

황 연구위원은 “(행동주의펀드가) 현재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원 선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실적은 주가와 연관돼 있으므로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해 5월 기업 밸류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2012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방향을 줬다”며 “파격적인 양적완화로 엔저를 유발하고 엔저를 통해 기업수익을 증가시키는 패러다임을 10년 전에 이야기했고, 그것 다음에 밸류업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의 소통도 강조한다. 황 연구위원은 “주총에서 표 대결을 하는 주주 제안은 최후의 수단 격이어서, 사전에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의견을 조정해 가는 노력이 기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 제시 노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주주환원·기업가치 제고 시너지 기대 주가상승·배당 높이려면 세제 개편을”

기업 경각심 높여 긍정적 성과 예상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주주환원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와 더불어 주주행동주의 활동으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용을 아끼는 등 더 좋은 경영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기업들이 발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동주의의 발미가 될 수 있으므로 행동주의와 밸류업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회사의 자본 비용 등을 스스로 파악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은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잘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회사 지배주주들이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제를 반드시 건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행동주의의 방향성이 일정 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하지 못하는 부문에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행동주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투자 관행이 바뀌고, 공시제도나 세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 임원 A 씨는 “우리나라는 행동주의 펀딩이 쉽지 않다. 일단 연금금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며 “행동주의펀드 특성은 폐쇄형인데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폐쇄형·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제도 역시 미흡한 점이 많다”며 “내부거래 공시제도 등이 보완 되면 기업들이 함부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pmk8989@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14개 통화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NH올원뱅크

내맘대로 외화BOX

비즈니스부터 여행까지
해외 갈 일이 많은 요즘
환율 걱정 없이 외화를
보관하고 꺼내 쓰는 방법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착한 마을 환전 이벤트
내맘대로 외화BOX로 환율우대도 받고
사회를 위한 기부에도 동참해 보세요!
최대 환율우대 90% + 사회공헌 10% = 100% 이벤트!

내맘대로 외화BOX
'BOX'에 들어가, 거래

영업점에서 환율 수령
*이벤트 기간 내 거래만 환율

거래 시 발생하는
외화결제비용 기부

지금 참여하기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의 환율스프레드 우대율은 주요 통화(USD, JPY, EUR) 90%, 기타 통화(CNY 등 11종) 40%입니다. * 상기 우대율은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되며, 추후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안내창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담당부서 : 외환(사람부) 준법감시인 심의일 2024~2026. 04. 01~2026. 03. 31)

NH농협은행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자율 모집, 최종 제안”

의료계에 “합리적 대안 달라”
이번주 의료개혁특위 출범
병원 떠났던 전임의들 복귀
교수 사직서 25일 효력 없어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요구한 건 의료계의 유일한 통일된 요구사항인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대한의협회의(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20일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22일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원점 재검토’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자율 모집을 정부의 ‘마지막 제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주에 예정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개혁위 회의에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은 군의관과 공공보건,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으로 더디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월 3주차 상급종합병원과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는 2월 1주차 대비 각각 70%,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월 1주차 대비 96% 수준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일부 전임의들도 최근 5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다.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당국이

파악한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 마감” 다시 못박아

대교협에 30일까지 제출 원칙
불법으로 수업 방해 엄정 대처
23곳 이어 17개 의대 순차 개강

정부가 2025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 자율로 50~100%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제출마감일이 4월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최종 모집 인원은) 4월 30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놔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서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23개 의대가 운·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나머지 17개 대학들도 일부 연기했지만, 순차적으로 개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교육부는 이번 주에 실국장 중심 현장 점검팀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포스코 “철강·이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 초일류 기업 도약”

장인화 회장 ‘7대 과제’ 발표

장인화(사진) 포스코그룹 회장이 신경영비전에 맞춘 7대 미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이 신뢰받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을 구체화했다.

2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포스코미래혁신 TF’를 가동하고 그룹 경영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그룹의 핵심 사업인 철강, 이차전지소재의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도 소재기업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장 회장은 19일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 “7대 미래 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체제 전반

철강, 구조적 혁신·설비 효율화
이차전지소재 풀밸류체인 완성
책임경영 확립… 신사업 발굴도

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대 미래 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이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 재창조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의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혁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철강은 초격차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전지소재는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우량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경쟁력 있는 풀 밸류체인(Full Value Chain)을 완성하는 한편, 신사업은 미래 소재 분야에 특화된 유망 사업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핵심사업 이외의 일부 그룹 사업은 구조개편을 하고 신사업은 미래소재 분야에 특화해 발굴, 육성한다. 특히 3년 내 유망 선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경영총괄 선수범 정책의 일환으로

임원 급여는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보상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장 회장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과감히 도전할 때 비로소 초격차,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 경제 불복화 등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한다. 수익성 측면에서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기술 개발 및 수소환원제철기술의 단계별 확대 등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실행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해 저탄소 제품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기존의 스마트팩토리를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을 융합한 인텔리전트 팩토리(Intelligent Factory)로 업그레이드해 수주-생산-판매 전반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차전지소재는 철강 사업에서 축적한 운영 역량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풀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 리튬, 니켈 등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에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캐즘(Chasm, 둔화기)을 겪고 있으나 이를 기회 삼아 리튬 염화물, 광산과 같은 우량자원 투자에 나서는 등 사업 전략을 고도화한다.

이동욱 기자 tot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에겐 금융의 손길만큼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NH농협금융은 오픈 비즈니스 데이와 디지털 챌린지를 통해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NH농협금융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어대명 시즌2’… 원내대표 후보군도 ‘교통정리’

‘친명색’ 짙어진 원내대표 후보
‘강성 친명계’ 박찬대 출마 선언
김성환·서영교는 돌연 “불출마”

국회의장 선출 규정도 강화
재적과반 득표·결선투표 도입
조정식·추미애·정성호 “도전”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거야(巨野)를 이끄는 원내대표 후보군은 교통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명(親李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만큼 내부에서 자연스럽고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김성환·서영교 의원이 22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선 국회의원당선자로서 원내대표 후보군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했다.

4선에 성공한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박찬대 최고위원만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안팎에서는 “정리수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다음 달 3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군은 두 자릿수로 난립 양상을 띠었지만,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

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다만 실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대다수 의원이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고, 강훈식·한병도의원의 경우 친명 색채가 짙은 탓에 출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4선 중에 비교적 계파색이 얹은 남인순·박범계·한정애 의원 등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기류는 이 대표의 연임설과도 무관치 않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꼭 연임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연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어느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조정식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다. 차차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난립 양상을 보였던 국회의장 경선 절차도 강화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지금까지 종다수(從多數)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결선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자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나타난 경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현재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이난희 기자 nanch0907@



고개 숙인 與당선자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尹, 3기 참모 직접 발표하며 ‘소통’ 강조 민주당 “영수회담 실무협의 취소, 유감”

洪 “바로 연락, 일정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앞세운 3기 참모진의 출발이 순조롭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준비일이 순연되면서 야당 측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언론 브리핑에 나섰다.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했다.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임명 발표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브리핑이었지만 총리 등 참모진 인선, 영수회담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대통령

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홍 정무수석 인선 브리핑에서도 ‘향후 국정 운영 방향’ 관련 질문에 “여야 정당, 언론, 많은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2년간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국민과 소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국민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도 대화해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과 관련, 정무수석 인선으로 관련 준비도 순연됐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이날 “어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 준비 회동이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측과 만남에 교체될 정무수석이 나서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전 중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홍 정무수석은 “오늘 바로 연락 드려 내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연결성을 갖고서 천준호 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도체·승용차 꽃바람 타고… 수출, 7개월 연속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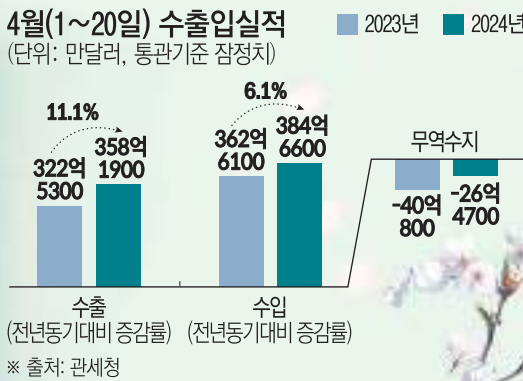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현황

수출액 358억달러로 11% 증가
반도체 43%·승용차 13% 늘어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 기대감 ↑
중동 사태 최대 변수로 떠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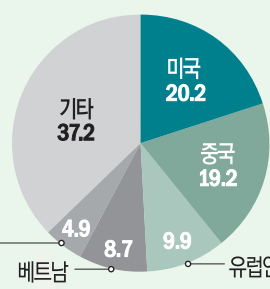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변동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8억1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주요국가 수출 비중
(단위: %, 총 358억달러)



와 같아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 달러로 이 역시 11.1%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출이 두 자릿수 수준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3.0%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도 12.8% 늘며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다. 석유제품(14.8%)과 정밀기기(6.2%) 등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철강(-2.5%), 자동차 부품(-0.9%), 선박(-16.7%)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2.8%), 중국(9.0%)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EU·-14.2%)은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은 72억2800만 달러로 대중 수출액(68억7000만 달러)을 상회했다. 지난달에 이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84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2억500만 달러)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43.0%), 반도체(18.2%), 가스(9.9%) 등에서 늘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24.8%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38.8%), 승용차(-12.4%) 등의 수입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26억4700만 달러 적자였다. 올해 누계로는 63억9700만 달러 흑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호조에 따라 두 자릿수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달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월말에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중동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중동위기·고환을 탓에 물가 2%대 물 건너가나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갖은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2%대 소비자 물가의 조기 안정을 꾀하려던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하반기 2%’ 예상했지만
중동 확전 고조 등 불확실성 ↑
물가 하향 안정화 기대감 흔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상반기 2%대 물가 안정 기대감이 높았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작년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1월 물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은 과일 등 농산물 가격 강세 속에도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해 한달 만에 3%대로 올랐고, 3월 역시 3%대(3.1%)를 이어갔다.

작년 작황 부진과 기저효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세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친 것이 2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의 주원인이 됐다.

특히 3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보다

1.2%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0.05%포인트(p) 끌어 올렸다. 전월 물가 기여도(-0.06%p)보다 0.11%p 확대된 것이다. 이달 초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확대 등)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확전 위기 고조 여파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이러한 기대감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중동 확전 위기 고조는 석유류 물가와 관련 있는 국제유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66% 올라 한때 배럴당 85.76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도 3.44% 상승해 90.11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주고받기가 일단은 소강상태지만 양국 전쟁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확전 시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는 시간문제이며 이럴 경우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물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한때 1400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중 14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재외공관장 회의 개막

조태열(앞쪽 왼쪽 네번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66만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

연금개혁 시민대표 설문 결과

“더 내고 더 받자” 찬성 비율

숙의토론회 후 56%로 치솟아

‘66만원→100만원’ 지지 얻어

‘66만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제속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보험료를 12%, 소득대체율 40%’ 안으로 압축했고, 이를 네 차례 숙의토론회 안건으로 다뤘다.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

토론회 후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은 월 300만 원을 넘는다. 임금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도 연금급여가 월 66만 원에 머물려면 가입기간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재정안정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소한 평균 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 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입기간 26년 평균·출산크레딧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인 임금수준과 임금 인상률, 3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 40%에서도 월 연금급여는 100만 원을 넘어선다. 석 교수는 현실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66만 원’ 시나리오를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바라봤다.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어찌나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면 보험료율을 4%p 이상해도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등 재정안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웃돌게 돼서다.

기금 소진 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개편하게 되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율)을 30%를 웃돌게 된다.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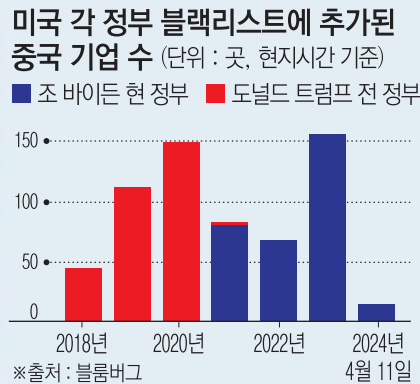
‘中 때리기’ 수위 높인 바이든… 계산기 두드리는 시진핑

美, 대선 앞두고 연일 中 압박
관세 인상·불공정무역 조사 추진

中, 경제 즉각적 영향 ‘미미’ 판단
경기둔화 속 수출 ‘셈법 따지기’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교적 조용히 실리를 따지면서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외국인 혐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3배인 25% 정도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선·



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해당 산업에 속한 중국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하원은 전날 틱톡 강제 매각이 포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그룹에도 중국의 반응은 비교적 잠잠했다. 중국은 바이든의 관세 인상 추진에 대

한 대응으로 지난주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700만 달러(약 97억 원)에 불과해 본격적인 대치라기보다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조선업 등에 대한 조사도 미국 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블룸버

그는 전했다. 전 인민해방군 연구원이자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그랜드뷰인스티튜트의 미국 리서치 책임자인 주준웨이(주준웨이)는 “중국은 미·중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실용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부동산 불황과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긴장을 높일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중국은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근 조치가 즉각적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중국의 온건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거의 수출하지 않으며, 조선업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여전히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며, 회사 측이 의회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양국 무역 관계의 모든 긴장이 선거 때 문만은 아니지만, 중국이 미국의 최근 공세를 선거 전략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시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했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미·중 무역 전쟁 재개는 중국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하지만 올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 화동사법대학 교수는 “중국은 미국 선거 주기마다 나타나는 ‘매파(강경파)’적 성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숨진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난 기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피에서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엄마 배 속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들고 있다. 이 아기의 엄마와 아빠, 4살 언니는 공습 현장에서 사망했다. 응급대원들이 임신 30주 상태로 죽은 엄마 시신을 급히 병원으로 보내 아기를 살려냈다. 태어날 당시 아기는 1.4kg이고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피에서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엄마 배 속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세상에 나온 아기를 의료진이 들고 있다. 이 아기의 엄마와 아빠, 4살 언니는 공습 현장에서 사망했다. 응급대원들이 임신 30주 상태로 죽은 엄마 시신을 급히 병원으로 보내 아기를 살려냈다. 태어날 당시 아기는 1.4kg이고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희망 물자 언급한 우크라이나 ‘한국산 105mm 포탄’ 관심

우크라이나 국방부, 본지에 서한

美 CSIS 제언에 첫 공식 입장
자국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 강조

美 국방부에 지원 의향 물었지만
“양국간의 문제” 원론적 답변만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M101 곡사포를 장전하고 있다. M101에는 105mm 포탄이 쓰인다.
도네츠크(우크라이나)/AP뉴시스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가 퇴짜 맞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105mm 포탄을 지원 희망 물자로 언급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2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본지에 필요 물자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 이번 서한은 최근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 지원을 거절한 것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산 105mm 포탄 지원을 제언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우리 방위군은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유형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동성과 높은 정확도가 특징인 105mm 포탄용 L119 곡사포가 그 예”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현재 전선 상황은 어렵다. 포탄과 장거리 미사일, 기타 무기가 부족해 우리 군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화력을 증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넓은 범위의 현대식 무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필요한 군사 지원이 더 지연된다면 전환은 우리에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신 방공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MLRS)용 장거리 미사일, 다목적 드론 등을 당장 필요한 목록으로 소개했다. 다만 지난번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

무장관처럼 패트리엇을 지원해 달라는 식의 직설적 화법은 피했다.

쿨레바 장관은 지난달 말 러시아와 협력하는 북한을 예로 들며 한국에 패트리엇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거절했다. 국내에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후 CSIS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 105mm 포탄을 우회 지원하면 미국이 155mm 포탄으로 상환해주는 방식을 제언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CSIS가 제언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본지 물음에 “이건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국은 “우리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장비와 무기를 출시하고 생산하는 데 심각한 도전에 처했다”며 “동맹국과 무기의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컨소시엄 형식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고 더 많은 투자를 제공하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더 커지는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주요국 공급망 다변화에… 흔들리는 中 ‘희토류 패권’

10년 만에 시장 점유율 90%→70%
미국·호주·베트남 등 대체국 부상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인 희토류 공급망을 독점했던 중국이 시장점유율 하락에 직면했다. 미국과 호주·미얀마·베트남 등이 중국산을 대체할 희토류 생산국으로 떠오르는 한편, 주요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생산국을 속속 확보했기 때문이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국가가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면서 90%에 달했던 중국 점유율이 10년 만에 70%까지 하락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희토류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90%에 달했지만, 2022년 70%로 축소됐다.

희토류 수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 동관증권 조사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증가율이 38%에 달했지만, 2022년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도 전년보다 7.34% 증가한 5만 2306톤(t)에 그쳤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무역전쟁을 선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대응 무기로 삼았다. 이를 앞세워 주요국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희토류 소비국들이 잇따라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찾기 시작하면서 점유율

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미얀마·라오스·베트남 등이 대체 생산국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USGS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16.9%로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부문에서 공급 다각화를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베트남은 자국 희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요 외국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추진 중이다. 희토류 공급을 조건으로 베트남에서의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일랜드, 기후변화에 ‘감자 대기근’ 재연 악몽

폭우로 예년 대비 파종 ‘3분의 1’

아일랜드가 감자 농사 흉작 위기에 직면하면서 19세기에 발생한 ‘감자 대기근’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인애플타임스(FT)가 보도했다.

감자 재배 시즌이 시작했지만, 상당수 농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아직 파종도 하

지 못했다. 통상 4월 중순이면 아일랜드 160곳의 재배지가 이미 파종을 하고 재배에 들어가는데, 최근 폭우로 현재까지 50곳 정도만 파종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농민조합(IFA) 감자위원회의 선 라이언 위원장은 “파종은 손도 못 대고 있다”며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고 한탄했다.

농업 컨설턴트인 리처드 해켓은 “현 상황이 기후변화 영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태만한 것”이라며 “예년보다 우기와 건기 모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로 종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아일랜드는 영국 스코틀랜드로부터 씨감자를 들여와 재배한다. 하지만 브렉시트 영향으로 현재는 가공을 위한 감자 수입만 가능하다고 FT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균형있는 국토 발전 SH가 이어갑니다

이주 희망 서울시민과 서울 입주 희망자
모두를 위한 지방상생형 순환주택 ‘골드시티’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 균형 발전과 함께
주거 행복의 꿈을 이어드립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주택시장 안정화

지방 인구 유입 및 활성화

- 고품질주택 · 여가 문화 레저
- 일자리 연계 · 광역 교통망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은퇴자,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 (병원, 문화 여가 등) 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골드시티 기대효과

서울	지방
이주자 보유 기존주택의 청년·신혼부부 재공급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품질주택, 여가·문화·레저,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골드시티 이주자를 위한 맞춤 혜택

노후자금 마련	경제활동 제공	지역정착 지원
서울주택 유동화 (주택연금 등) 및 임대를 통한 이주자 노후자금 마련	다양한 소일거리 제공을 통해 일상에 활력 부여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융화 도움

플라스틱 줄이고 친환경 레시피 공유… “지구 함께 살려요”

유통기업 ‘지구의 날’ 캠페인

이마트, 폐플라스틱 23톤 수거
CJ제일제당, 핫반 용기 재활용
샘표·롯데GRS, 탄소저감 활동
아모레, 화장품 유리병 재사용

국내 유통·소비재기업들이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친환경 활동과 캠페인에 나섰다. 플라스틱 감축은 물론 일회용기 재활용(업사이클링), 친환경 레시피 공유까지 그 방식도 다양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23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가플지우(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한다. 2018년 이마트와 테라사이클, 한국 피앤지 등 3개 파트너사로 시작해 매년 참가사 늘고 있고, 올해는 콘텐츠랩 ‘비보’가 새롭게 참여해 총 16개의 기관이 캠페인에 힘을 신는다. 이들은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고도화 △파트너사 공

‘지구의 날’ 맞이 기업별 활동 ※출처: 각 사	
회사명	친환경 ESG 활동 내용
이마트	‘가플지우’ 캠페인 협약식(16개 기관 참여), 사내식당에 저탄소대안육 점심 제공
CJ제일제당	카카오메이커스와 ‘핫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
면사랑	냉동용기면 리뉴얼 통해 개당 플라스틱 23g 감축
샘표	‘지구를 위한 채소 레시피’ 공유·친환경 패키지 소개
롯데GRS	나무 식기·자사업 전자 영수증 발급 소개
신세계푸드	식물성 패티 사용 ‘베리 불고기 버거’ 출시
아모레퍼시픽그룹	화장품 유리병 수거 사범사업

동 마케팅 및 홍보 강화 △해안정화활동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환경 교육 강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마트와 파트너사는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7년간 총 23톤(t) 가량의 폐플라스틱을 수거했다. 또한 이마트는 이날 본사 사내식당에서 신세계푸드가 만든 저탄소대안육 ‘베리미트(Better Meat)’를 활용한 점심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

CJ제일제당은 ‘핫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회수한 핫반 용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세척해 원료로 만들고, 카카

오메이커스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참여 희망 소비자는 다음달 1일까지 카카오메이커스 홈페이지에 지원하면 된다. 선정된 5000명 참가자에게 수거용 박스가 제공되며, 7월 1일까지 30개 이상 핫반 용기를 돌려보내면 된다. 업사이클링된 제품은 추후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며, 수익금은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쓰인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가정간편식 제품 냉동용기면의 포장 용기를 전면 리뉴얼했다. 여러 번의 자사 테스트를 통

해 바꾼 냉동용기면은 공기를 주입해 성형하는 발포 플라스틱과 입체적 디자인을 적용해 개당 23g의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 용기 대비 약 51%의 플라스틱을 절감, 연간 약 11t 이상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냉동용기면은 130~150도 고온에서도 내열성을 갖춘 소재로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 발생 위험도 없다. 직화불닭면, 직화크림불닭면을 비롯해 베스트셀러 제품인 까르보나라 크림우동, 볶음짬뽕면 등 9종에 적용한다.

샘표는 브랜드 세미네부엌 플랫폼을 통

해 ‘지구를 위한 채소 레시피’를 공유했다. 팽이버섯 밀동으로 만드는 스테이크, 빵 없이 채소로 재료를 감싸는 샌드위치 ‘언위치’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 주최로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 코엑스 지구의 날 행사에서 친환경 패키지 적용 ‘요리에센스 연두’와 ‘세미네부엌 딥소스 2종’도 소개한다. 롯데GRS도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 절감 활동에 나섰다. 나무 소재의 식기 사용, 자사 앱 ‘롯데잇츠’에서의 전자영수증 발급 등이 대표적이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는 100% 식물성 패티를 사용한 저탄소 메뉴 ‘베리 불고기 버거’를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화장품 유리병 회수사범사업’에 나섰다. 아모레는 경기도 오산(2곳), 충남 천안시(3곳) 아파트 단지에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을 설치했다. 아모레는 수거된 유리병을 설화수, 라네즈, 헤라, 한울 등의 일부 제품에 최대 20%까지 적용해 재활용 유리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iy42@

‘차이나플러스’ 오늘 개막… 국내 화학사 첨단소재 선보인다

〈글로벌 3대 화학 산업 전시회〉

23~26일 중 상하이서

롯데·SK케미칼·LG화학 등 참가
고부가가치·친환경 기술력 공개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러스(Chinaplas) 2024’가 23일 개막한다. 롯데케미칼, SK케미칼, LG화학 등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은 차이나플러스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친환경 소재 제품군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이나플러스 2024가 23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다. 차이나플러스는 미국 NEP, 독일 K소와 함께 글로벌 3대 화학 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및 친환경 재활용 솔루션’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은 초고충격 폴리프로필렌(PP)과 고무명 의료용 PP, 접착력이 우수한 태양광 봉지재용



‘차이나플러스 2024’에 꾸러진 롯데케미칼 부스.

사진제공 롯데그룹 화학군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기계적 및 화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저결정성 페트(PET) 등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를 선보인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기술과 정정수소 추출·운반 기술, 전기차 배터리 사용되는 파우치 필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분리막, 양극박, 동박, 전해액 유기용매, 부품 소재도 전시한다.

SK케미칼은 자사의 순환 재활용 기술을 중점적으로 알린다. 전시관은 도시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이 순환 재활용 기술을 통해 재활용 원료로 재탄생하고, 이

원료가 여러 가지 제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환 재활용으로 탄생한 모노머, 폴리에스터, 코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소재들과 함께 이 소재를 실제로 적용한 화장품, 타이어코드, 페트병 등 최종 제품도 함께 전시한다.

안재현 SK케미칼 사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업계와 브랜드 오너를 대상으로 순환 재활용의 필요성과 장점, 경쟁력을 더욱더 알릴 순환 경제를 이끄는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에틸렌 아크릴산

(EAA)과 아이오노머(I/O), 경량화 소재 등 고부가 화학제품에 집중하며 차별화된 생산 기술을 뽐낸다. 전시관은 △접착&밀봉 솔루션·신기술에너지솔루션 △라이프스타일솔루션 △어드밴스드 솔루션 등 3개 주제로 마련됐다.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121평 규모의 부스에 6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선보인다.

‘렛제로(LETZero) 존’에는 땅에 묻으면 6개월 내 자연 분해되는 소재와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열분해유 플라스틱, 기계적 재활용 제품 등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독자 기술 기반의 탄소나노튜브(CNT),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이 적용된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 자동차 내·외장재, 고내열·고전압 충전용 폴리염화비닐(PVC) 케이블 등을 볼 수 있다.

‘리빙 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CO2플라스틱 소재, 친환경 발효 공정으로 만든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의료용 장갑 소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SK지오, 원가·부산물 줄인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확보

SK지오센트릭이 적은 비용으로 화학 부산물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PLA) 원료 ‘젯산’을 만드는 신기술을 확보했다.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젯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방법을 개발해 한국생물공학 회로부터 우수기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PLA는 매립 시 3~6개월 내 자연분해돼 분해에만 500년 이상 걸리는 석유화학 물질(에틸렌) 플라스틱을 대신해 지속 가능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이머전리서치는 세계 PLA 시장 규모가 2019년 15억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8.5% 성장해 2032년 138억9109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젯산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지속적인 발효를 위해 산을 중화하는 중화제(칼슘)를 투입하고, 이때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부산물(황산칼슘)을 제거해야 하는 건 PLA 확산의 걸림돌로 꼽혔다.

연구진은 산에 강한 특수 미생물을 선별하고, 독자적인 미생물 촉매기술을 활용해 중화제 사용량을 줄인 젯산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부산물 처리에 따른 환경 부담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간 미국 기업만 상업화에 성공했을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았으나, 이번엔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를 구현해냈다.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연구개발(R&D)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의 지속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 PLA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현대차그룹, 美 전기차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

147MW 규모 전력구매계약 체결
年 14만톤 탄소저감 효과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기 위해 147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15년(2025~204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최

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다.

계약에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동반 진출한 ‘현대모비스 북미전동화법인(MNAe)’과 ‘현대제철 조지아법인(HSGA)’, 인근에 있는 ‘현대트랜시스 조지아P/T법인(HTGP)’ 등 현대차그룹 4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PPA는 기

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의 공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발주와 연계된 신규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글로벌 탄소 감축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에너지 조달을 통해 기대되는 탄소 저감 효과는 연간 약 14만 톤(t)으로 추산된다. 이는 준중형 세단 8만40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현대차그룹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태양광 프로젝트는 매트릭스 리뉴어블

스가 미국 텍사스주 벨 카운티에 내년 10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인 210MW급 발전시설이다.

현대차그룹은 총 발전용량 210MW의 70%인 147MW를 확보했으며, 매년 378기가와트시(GWh)에 이르는 재생에너지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HMGMA는 완성차 공장 자체는 물론 공급망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의 PPA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미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와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kangmj@

K-방산 찾은 加사절단… 70兆 잠수함 수주전 물밑경쟁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집중했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에 3000톤(t)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이날 HD현대과 한화오션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산업융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기업 스카이넷,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기업 머지베이스,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블루마인드, 마이크로 펌프 및 회로 제작 분야 회사로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한 보레아스 테크놀로지 등 유망 IT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방문은 주한캐나다대사관 협력하에 준비됐으며 주한캐나다대사관 경제상무관이 동행했다.

캐나다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 북극, 태평양에 걸쳐 광범위하게 탐사하고 중국이 빠르게 수중 함대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역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앵거스 탑시 왕립 해군사령관은 2월 양용모 해군참

모총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D현대에는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GRC)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역량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문장은 최근 인도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

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다. HD현대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더불어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수주를 검토 중

이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L3해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현지조달, 기술이전, 절충 교역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이용욱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은 사절단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건조해 납품하

는 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특수선 분야에서는 미국 해군의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과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다. 현지 기업들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잠수함 전문 포럼 ‘딥 블루 포럼 2023’을 계기로 씨에이디, 제이스퀘어드 테크놀로지, 모데스트리, 데스네데 등 4개 회사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이지만, 현지 중소기업 및 원주민 기업과의 협력 등 까다롭고 다양한 교역 조건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사장 복귀, 책임경영 측면서 긍정적”

22일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주6일제서 세계경제 위기 느껴 노조 단체활동은 발전하는 과정”

이찬희(사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 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



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견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다 이달 초부터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겸직하며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경영 복귀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를 찾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 임원들의 주 6일 근무 동참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고,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위기로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삼성도 위기의 여파를 받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니 위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는 “워낙 바빠서 아직 못 만나봤다”며 “지금 사장님들도 주말에 출

근하는 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님이 전 세계, 국내 모든 사업장을 체크하시는 데 아직 저희가 특별히 이슈를 갖고 만날 때는 아니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와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아직 저희에게 안건이 안 올라왔다”며 “올라오면 한경협 가입과 관련해 났던 조언이 있으니 그 권고에 따라 철저히 검토하겠

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노 간, 혹은 노사 간 어떤 경우든 인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청라에 ‘BMW R&D 센터’… 韓시장 최적화 차량 개발

국내 수입 차량 인증·제품개발 업무 韓협력 강화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BMW가 청라국제도시에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를 연다. 이를 통해 BMW는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22일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에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2015년 인천 BMW 드라이빙 센터 내에서 시작한 BMW 그룹의 한국 연구개발 시설이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BMW 그룹 본사 주요 임원들이 언급했던 한국 R&D 센터 확장 계획에 따라 지어졌다. 지난해 4월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착공한 후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완공했다.



청라국제도시에 22일 개관한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 전경. 사진제공 BMW그룹코리아

신규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대지면적 약 1600평(5296㎡) 부지에 연면적 850평(2813㎡) 규모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사무 공간과 정비 및 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연구실 등의 테스트랩이 마련됐다.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을 갖췄다.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는 총 5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차량의 인증, 제품 개발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 국내 인증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신차나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 한국 내 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맡을 ‘BMW 테크놀로지 오피스’도 자리하며 국내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도 문을 연다. 이민재 기자 2mj@

송영록 기자 syr@

한화임팩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 3500만원 2년째 친환경에너지구축 사회공헌

한화임팩트가 2년째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친환경 에너지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다. 회사 지원금 등 3500만 원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서울 내 위치하거나 서울시의 관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소요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내는 그린 리모델링 시공을 의미한다.

내달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소재지와 관리 지역이 달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설들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낡은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소비를 줄이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서울 마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방정석(오른쪽) 한화임팩트 사업 지원담당과 은용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임팩트

경제·환경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작년 기부금을 통해 7개 복지시설이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료 절감은 물론 10년생 소나무 1만 8099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었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탄소 중립과 복지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임직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과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혁신 투자기업이다.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회사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삼성전자, 獨슈퍼컴퓨팅 콘퍼런스서 차세대 AI 솔루션 발표

삼성전자가 내달 독일에서 열리는 ‘ISC(국제 슈퍼컴퓨팅 콘퍼런스) 2024’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적극 알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최신 패키징 기술 등을 소개하며 차세대 반도체 초격차에 시동을 건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다음 달 12~1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ISC 2024에 참가해 고성능 컴퓨팅(HPC) 핵심 솔루션인 HBM 등을 공개하고 참가자들과 학술 교류 및 협업 등을 논의한다.

ISC는 매년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슈퍼

컴퓨팅 관련 콘퍼런스다. 삼성전자가 ISC에 연구 논문 발표가 아닌 전시회 부스로 참가하는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뒤쳐진 HBM 시장에서 다시 앞서나가기 위해 HBM4(6세대) 제품에 승부를 걸고 있다.

중소 금융 리스크 선제 대응…“연체율 모니터링 필요”

중기부·금융위 협의체 키포프

정부가 중소기업의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필요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협의체’ 1차 회의(키포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대출,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1차 회의에는 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공동주재하고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면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오영주 장관·김주현 위원장 주재

자금·대출·재무 정기점검 통해
지원안 적기 마련해 정책 반영

경제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지만
수출·내수 기대만큼 좋지 않아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증가를 보이는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인건비 등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용이 감소하고 연체율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기업 매출의 주축인 수출과 내수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며 “매월 개최되는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과 애로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애로 점검 협의체 키포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아직 기업부분의 부실은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

서도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금리상황 지속, 내수시장 침체가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오 장관은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왔으나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도 여러 금융 문제가 있지만, 그 크기가 작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실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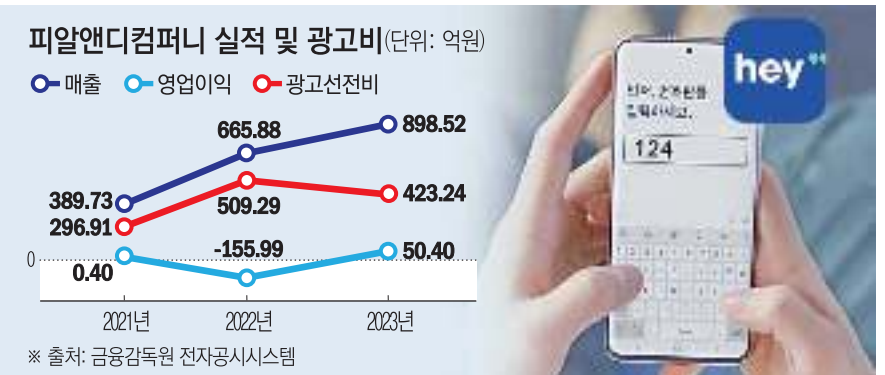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장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장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광고비 줄인 헤이딜러 ‘흑자 전환’

스타 마케팅 인지도 쌓았지만
판관비 늘어 2022년 영업손실
작년 50억 영업이익…매출 35%↑

온라인 내 차 팔기(C2B) 플랫폼 헤이딜러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수년간 스타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쌓기로 매출이 신장한 데다 작년에는 광고비를 크게 낮춘 것이 효과를 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헤이딜러 운영사인 피알앤디컴퍼니는 지난해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2년 156억 원 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다. 매출은 666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34.9% 신장했다.

헤이딜러는 2021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래 작년 6월 누적 거래액이 10조 원을 돌파하고 9월에는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시장에 나온 모든 중고차의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중고차 숨은이력 찾기’ 기능 등 기술적인 경쟁력 외에 배우 김혜수와 한소희, 영화감독 박찬욱 등 스타를 기용한 마케팅이 회사 성장에 일조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매출 신장세를 비롯해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70.9%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나친 스타 마케팅은 수익 악화로 이어져 2022년에는 15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판관비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총 775억 원의 판관비 중 광고비로만 2021년보다 212억 원이 증가

한 509억 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광고비 절감에 나서 2022년보다 16.8% 줄어든 423억 원을 지출했다. 금액으로는 86억 원을 아낀 셈이다. 이에 따라 판관비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5.7%에서 지난해 49.9%까지 내려갔다.

회사는 순이익 전환을 비롯해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신사업을 위한 실탄 마련은 물론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안정성도 보강했다. 2022년에는 유상증자로 100억 원, 작년에는 432억 원이 유입됐다. 회사가 시리즈D까지 유치한 누적 투자 금액은 950억 원이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2022년보다 135.3% 늘어난 849억 원이 됐다. 현금및현금성자산도 120억 원에서 595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 93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하면서 부채비율은 17.4%에서 23.0%로 소폭 올랐다.

피알앤디컴퍼니는 회사 유입 자금으로 12월 50억 원을 들여 카바조 지분 99.2%를 확보했다. 카바조는 중고차 구매 전 매물 상태가 불안한 고객을 위해 정비사 150명이 활동 중인 출장 검수 서비스다.

이외에도 아주파이낸셜대부와 한국자동차인증, 퍼플핀단평가, 그린자동차평가 등에 5억 원 전후를 투자해 49.9~100% 지분을 확보하며 이들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으로 편입했다. 이중 아주파이낸셜대부에는 128억 원의 장기대여금을 내주는 등 이 회사를 통한 사업 전개도 예고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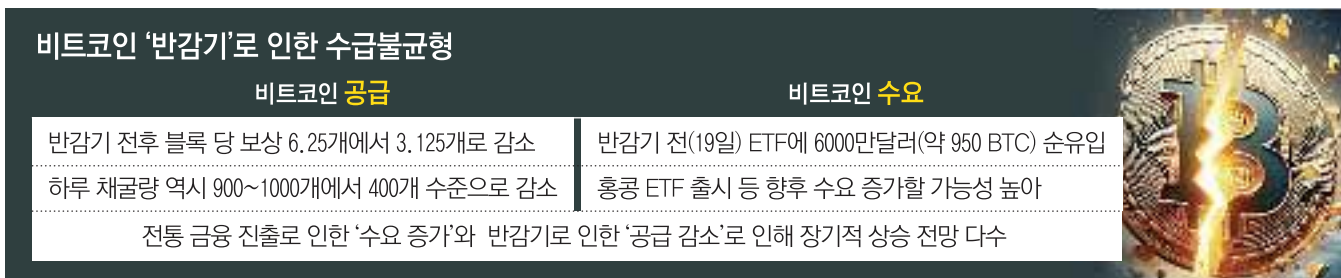
〈IMF 보고서〉

“비트코인, 자산보존 필수도구”…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대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보존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미국과 홍콩 등 국가에서 전통 금융업계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공급량도 줄어듦에 수요·공급 관계에 의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요 증가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반감기를 거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거시 경제 환경 및 중동 분쟁 영향으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달성한 신고가(ATH) 대비 약 10% 하락한 6만 6412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거시 경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대상 아닌 글로벌



IMF ‘비트코인 잠재력’ 보고서 “투기대상 아닌 필수요소로 부상”

별 자산 보존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속에서 특히 엄격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지난주 홍콩

현물 ETF 등 수요 증가세 보여 반감기에 공급량은 절반으로 푹

에서도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며 거대 전통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20일에는 역사상 네 번째 반감기 업그레이드 진행되며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이번 네 번째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블록보상(생산량)은 블록당 6.25개에서 3.125개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 중 하나인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

전문가 “ETF發 신규 투자자 유입 장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 분석도

(최고투자책임자)는 반감기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히며, 비트코인 수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각) 호건 CIO는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통 금융권의 시장 진출에 의한 수요 증가와 반감기에 따른 공급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반감기로 인해 공급자(채굴자)가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의 특수성 때문에 반감기 이후 가격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ETF 등 전통 금융권의 유입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들은 채굴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강제적 판매자’인 채굴자보다, 원할 때 높은 가격에 판매를 원하는 ‘자발적 판매자’의 시장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급·수요 구조로 인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크립토퀀트의 온체인 분석가 ‘크립토탄’ 역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1일 크립토탄은 “(반감기를 거치며) 이제부터는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약 400~500개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감소된 공급량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투자자들의 2차 유입으로 인해 2024년 2~3분기 내에 가파른 상승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급과 수요 법칙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편더멘탈이 더욱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실명계좌 손잡을 곳이 없네”… ‘코인마켓 줄폐업’ 은행 선택권 줄었다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을 두고 은행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코인마켓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 의지가 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이 이어지면서 계약을 맺을 거래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서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 투심이 회복하면서 최근 비트코인은 사상

4년 전 업비트 손잡은 케이뱅크 지난해 수수료 수익 108억 챙겨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관심 높아 거래소에 먼저 미팅 제안하기도

작년부터 거래소 줄폐업 이어지고 거래량 줄자…은행들도 신중모드

최고가를 갱신했다.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4분기에만 3300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였다. 직전 분기 매출인 19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영업 현황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지닥, 포블게이트
거래대금 1억원 이하	플라이빗, 플랫폼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빙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큐비트
폐업한 거래소	캐서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 출처: 각 거래소

업비트 실적개선은 케이뱅크 호재로 이어진다. 케이뱅크는 2020년 6월부터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업비트 이용자가 원화를 입출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 시장 불장이던 2021년 한해에만 292억 원의 수수

료 수익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약 108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 은행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국내에는 1거래소 1은행이라는 암묵적 규제가 존재한다. 한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직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역으로 계약 절차를 물으며 미팅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서도 당장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수수료 수입을 두고 지방은행의 니즈는 있지만, 가상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 자금세탁과 연루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겨 쉽게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유의미한 거래량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각 거래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중 일일 거래대금 1억 원이 넘는 곳은 지닥, 포블게이트 등 2곳에 불과하다.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적어 향후 영업종료를 발표할 거래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이 이어지면서 실명계좌 계약 의지가 있는 은행들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카카오-LG ‘로봇배송’ 동맹… 복잡한 배송주문도 척척

카카오모빌리티 ‘브링’ 출시

자체 로봇 오픈API 플랫폼 ‘브링온’ LG전자 ‘클로이 서브봇’에 탑재

카카오모빌리티가 LG전자와 이달부터 대형 오피스, 호텔, 아파트, 병원 등을 대상으로 로봇 배송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로봇 오픈 API 플랫폼 ‘브링온(BRING-ON)’을 출시하며 로봇 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브링온은 배송 로봇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오픈 API 플랫폼 ‘브링온’이 결합된 상품으로 △식음료 배달 △사무실 내 우편 배달 △호텔 내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고객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로봇으로 수행할 수 있다. 플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을 이용하기 위해 한 직원이 배송 로봇에 소포를 싣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모빌리티

랫폼 제어를 통해 사무실·호텔·아파트·병원 등 로봇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도 바로 배치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배송에 최적화된 로봇 오픈 API 플랫폼 브링온도 개발했다. 브링온은 오픈 API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송 주문과 로봇을 연동해, 배송 서비스의 유형이나 로봇의 기종에 제약받지

않고 고객의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췄다.

브링온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축적해 온 인공지능(AI) 최적배차·수요예측·라우팅 등의 모빌리티 기술이 집약적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복잡한 배송 주문을 플랫폼 상에서 분류하고, 각 로봇에 최적의 배차해 관리자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배송의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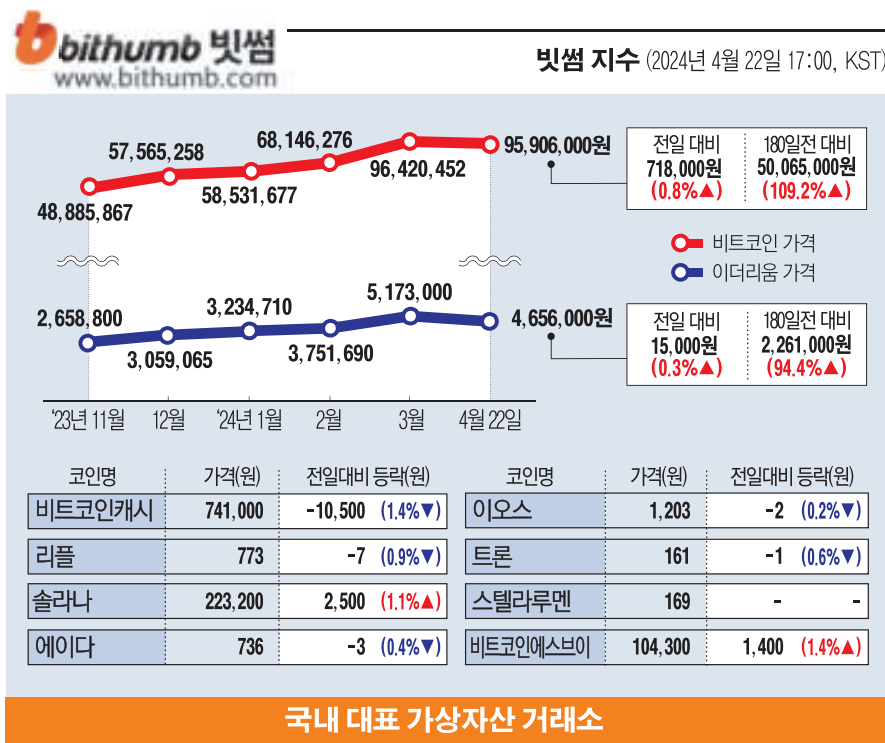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는 로봇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LG전자와도 손을 잡았다. 양사는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LG전자의 로봇 배송 분야 단독 파트너로서, LG전자의 신규 배송 로봇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 양문형)’을 브링 플랫폼에 도입했다. 로봇 분야 선도기업인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최고 품질의 로

봇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줄잇는 K-디지털치료제… 아날로그 제도에 멈칫

국내 디지털치료제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2종이 신규 허가를 받으며 적용 가능한 질환도 불면증에서 시야 개선, 호흡 재활까지 확장됐다. 그러나 디지털 치료제가 널리 쓰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충분치 않아,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던 지적이 나온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 ‘비비드브레인(VIVID Brain)’과 웨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 소프트웨어 ‘이지브레스(EasyBreath)’ 2종이 국내 3·4호 디지털치료제로 19일 허가받았다. 디지털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 예방·관리·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점에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별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5일 국내 1호 디지털치료제로 에임메드의 ‘숨즈(Somzz

불면증 치료제 2종 허가 이어
시야장애 개선 ‘비비드브레인’
천식 등 호흡 재활 ‘이지브레스’
생활습관 개선 통한 질환 방지
장기간 기술평가 한계 지적도

)’를 허가했다. 이어 4월 19일 웰트의 ‘웰트아이(WELT-I)’를 허가했다. 3·4호 치료제의 탄생은 그후 1년 만이다.

숨즈와 웰트아이는 모두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불면증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심리적·행동적·인지적 요인의 교정을 목표로 하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구현했다.

비비드브레인과 이지브레스가 이번엔 허가를 받으면서 디지털치료제 사용 범위도 늘었다. 비비드브레인은 뇌 질환으로

국내 허가 디지털치료제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발사	치료제	허가 시기	효능
에임메드	숨즈	2023년 2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웰트	웰트아이	2023년 4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뉴냅스	비비드브레인	2024년 4월	뇌질환 시야장애 환자 시야 개선
웨어앤서비스	이지브레스	2024년 4월	천식·폐암·COPD 환자 호흡 재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해 좁아진 시야를 개선한다. 이지브레스는 만성폐쇄성질환(COPD),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해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곤란 증상을 나아지게 한다.

이처럼 디지털치료제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지속적인 훈련을 유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사망 원인에서 중증질환의 비중은 점점 줄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

성이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디지털치료제의 역할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충분히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다.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기관마켓츠앤마켓츠는 글로벌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2023년 61억 달러(약 8조 원)에서 2028년 219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이 가장 활발하며, 유럽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기대만큼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가능한 현 제도가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3~5년간의 비급여 처방 임상 자료를 수집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250일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 후 최소 4년은 지나야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가 쓰인다. 유럽은 디지털치료제의 비용 보장·급여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라 공적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독일의 경우 3개월간의 평가를 거치면 임시 등재가 가능하고 1년간 효과 검증이 끝나면 영구 등재하는 발 빠른 정책으로 유럽 디지털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HK이노엔, 8년째 나무심기… “사회적 책임 생태계 조성”

가보니 마포구 노을공원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 초여름 더위에 가까웠던 18일. HK이노엔의 나무 심기 현장을 찾았다. 이날 약 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나무 심기에 동참했다. 코로나 19로 캠페인에 처음 참가하거나 오랜 만에 현장을 다시 찾은 이도 있었다.

HK이노엔의 ‘건강한 숲, 편안한 숨’ 나무 심기 캠페인 초기부터 함께해 온 김기호(사진) 전략지원실 상무는 이날 본지와 만나 “사회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K이노엔은 2016년부터 매년 서울마포구노을공원에서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동안 코로나 19로 중단됐지만 지난해부



지구의 날 맞아 CSR 활동 나서
임직원 20여명 자발적으로 참여
코로나 이후 지난해부터 재개

터 재개됐다.

김 상무는 “그룹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보자는 취지로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캠페인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선 임직원들이 탄소 흡수량이 많다고 알려진 신갈나무와 갈참나무 100그루를 심었다. 비대면으로 참가한 50여 명의 임직원은 집과 사무실에서 도토리 씨앗을 키운다. 100일간 정성스레 키운 씨앗은 향후 노을공원에 옮겨 심는다.

신입사원 시절 후 오랜 만에 캠페인에 참가했다는 정래현 HK이노엔 ESG 경영팀 대리는 “8년 만에 참가했는데 감회가 새롭다. 힘들게 심었던 나무



HK이노엔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제공 HK이노엔

가 잘 크고 있을지 궁금해서 참여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HK이노엔은 캠페인 초창기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캠페인의 의미와 지속성 때문이다. 강제적인 활동이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행사라도 불만이 나오고, 지속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내가 심은 나무가 잘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다음 해에 또 오는 직원도 있다. 강제적인 활동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한 직원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난지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고 한 김 상무는 “아름다운 땅에 나무를 심어 살리겠다는 마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다”며 “사회에 돌아가면 회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소지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재차 강조한 김 상무는 “사람에 의해 난지도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기쁜 것 같다.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무 심기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는 밝혔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삼바 임직원 자발적 참여 생활속 ESG 캠페인 시작

삼삼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2024 ESG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삼삼바이오로직스는 4가지 실천 활동으로 조명 소등, 종이 절약,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을 제시했다.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 30분간 교대근무자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조명을 끄고 있다. 2공장은 지난해부터 자동 소등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향후 전 공장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연간 35.4메가와트시(MWh) 상당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 시 불필요한 출력물 인쇄를 줄이고, PC 화면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종이 절약’ 활동,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단 이용’ 활동도 권장하고 있다. 또 일회용 컵 사용 절감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임직원에게 사내 카페에서 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20%, 2030년까지 32% 감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임직원 ESG 캠페인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 손발바닥 농포증서 유효성·안전성 확인”

한국애브비는 22일 서울 강남 안다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건성질환 치료제 ‘스카이리치’에 대한 임상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자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손발바닥 농포증을 연간 4회 투여로 관리할 수 있는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맵)의 국내 허가를 기념해 마련됐다. 앞서 식약처는 9일자로 스카이리치 대해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18세 이상)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 승인했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발가락이나 손발바닥에 발진, 물집, 붉은 반점과 함께 노란색 농이 찬 무균성 고름이 나타나며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동반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전자 이상 △흡연 △감염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자들은 빈번한 질병악화와 부분적인 호전과 재발로 어려움을 겪는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제약받고,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환자 수는 1만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백유상 고려대교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22일 서울 강남 안다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백유상 고려대교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스카이리치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연간

총 4회 투여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스카이리치 투여 간격은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계열 생물학제제 중 가장 길다. 임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됐다. 애브비는 일본에서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성인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백 교수는 “먹는 약의 경우 장기간 사용 시 탈모, 건조증, 간 수치 및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스카이리치와 같은 생물학제제가 안전성이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손발바닥 농포증은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희귀질환 인정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백유상 교수는 “효과가 있고, 안전성도 갖춘 약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투약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제약 받는 환자가 많은데 투약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며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혜택을 볼 환자가 충분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노상우 기자 nswreal@

발진·물집 나타나며 가려움증·통증 유발
12주 간격 투약·기존 약보다 편의성 높아

점포 수 포화에… 편의점, 톡톡 튀는 매장으로 승부

편의점업체가 점포 숫자만 늘리는 ‘덩치 키우기’ 전략 대신 매장별 차별화 상품을 늘리는 ‘특화점포’에 갈수록 힘을 주고 있다. 국내 편의점업체는 매장 수로만 보면 사실상 ‘시장 포화’ 상태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체는 개별 점포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일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작년 12월 첫선을 보인 라면 특화점포 ‘라면 라이브러리’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이곳에서 판매한 라면 누적 판매량은 5만 개를 돌파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는 국내의 인기 봉지라면을 도서관 콘셉트로 선보이는 CU의 라면 특화점포다. 이곳에는 한강 둔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면 즉석조리기’ 등을 구비해 라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인 ‘CU 홍대상상점’은 전 세계적으로 K라면이 인기인 상황을 반영하듯, 외국인 여행객의 필수 한국 방문지로 부상했다. 주말인 20일 찾은 이곳에는 라면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해외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동안

CU 홍대점 외국인 비중 65%

라면 누적 판매량 5만개 돌파

GS25 주류특화·신선강화 점포

전국 각각 7500·250여곳 운영

세븐일레븐 먹거리 특화 매장

‘푸드드림’도 전국 1300여개

CU 홍대상상점을 찾은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65%에 달한다.

이같은 인기에도 힘입어 CU는 이달 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 ‘라면 라이브러리 2호점(CU 잠실선착장점)’을 열었다. 오픈 첫 주 주말(13~14일)에만 봉지 라면이 하루 평균 700개 팔렸다. CU는 또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특화점포 3호점인 ‘스낵&라면 라이브러리’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스낵 480여 종과 K-라면을 한데 모았다. 라면 라이브러리에서라면 다음으로 디저트, 과자류의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 라이브러리 테마에



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 CU 홍대상상점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즐기고 있다.

스낵을 추가한 매장이다. CU는 향후 맥주를 전면에 내세운 특화 점포 ‘맥주 라이브러리’ 매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편의점업체가 특화매장에 힘주는 것은 편의점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약 5만

3000개다. 상황이 이렇자 점포 수를 늘려 외형을 확장하기보다는 차별화를 통해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높여 승부를 보는 전략을 펴는 데 집중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주류특화점포, 신선강화점포를 전국에 각각 7500여개, 250여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문을 연 ‘GS25 전주본점’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주류전용 공간으로 채운 특화 점포다. 주류전용 공간에서는 와인 600여 종과 위스키와 보드카 등 양주 300여 종, 전통주 수제맥주 100여 종 등 주류 1000여 종을 판매한다. 신선강화점포는 농수산물물을 비롯해 조미료, 소스류, 두부, 간편식 등 장보기 관련 상품들을 상권 유형, 매장 면적에 따라 일반 편의점 대비 300~500여 종 이상으로 운영한다. GS25는 신선강화점포를 연내 1000호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도 먹거리 특화점포인 ‘푸드드림’을 전국 약 1300여개 운영 중이다. 푸드드림은 일반 점포 대비 규모가 큰 약 30~40평 규모 공간에 도시락, 가정간편식(HMR) 등 간편식을 비롯해 각종 신선식품과 와인, 넓은 시식 공간까지 갖췄다. 특히 작년 3월 서울 사당역 인근에 푸드드림 2.0 1호점인 ‘푸드드림 에코(ECO)’를 선보였다. 먹거리에 환경적 요소까지 더한 매장으로 식물성 고기 브랜드 ‘엔리미트’, 풀무원의 식물성지방 브랜드 ‘식물성 지구식단’ 등 다양한 비건(채식주의) 상품을 도입했다. 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폴 바셋, ‘한옥의美’ 담은 경주 1호점 오픈 매일유업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은 한옥의 미를 담은 첫 번째 경주 매장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경주 교동 DT점은 폴 바셋이 처음 선보이는 한옥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으로,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각의 인테리어가 조화롭다. 특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팔각을 중심으로 기와, 대들보, 좌식 평상 등 전통 한옥의 특징을 살렸다. 높은 층고와 통창으로 탁 트인 공간과 야외 테라스는 천년고도 경주의 풍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사진제공 매일유업

AI 통역·멤버십 강화… 백화점 “외국인 충성고객 잡자”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인 외국인 쇼핑 수요를 잡기 위해 밀착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한층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통역 서비스는 물론 쇼핑금액에 따른 적립과 할인 혜택을 강화한 전용 멤버십 등을 통해 외국인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2일 백화점업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이날부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AI 통역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통역 서비스는 SKT에서 출시한 AI 기반 통역 솔루션 ‘트랜스 토크(Trans Talker)’를 기반으로 안내데스크에서 실시간 통역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서비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러시아어 등 13개국어 언어로 구현된다. 신

롯데백, SKT와 AI 통역 서비스 신세계, 외국인전용 데스크 운영 현대백, ‘H포인트 글로벌’ 선포

세계백화점은 외국인 고객들이 주로 찾는 본점에 ‘외국인 전용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서 요청할 경우 외국인 데스크 직원이 매장에서 직접 중국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식당가에서도 모바일 QR을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고객 멤버십 제도도 VIP 혜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원스톱 가능한 외국인 전용 멤버십 ‘H포인트 글로벌’을 선보여 인기다. 이 서비스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7%가 적립되고 더현대서울 등 주요점포

식당 예약과 내국세 환급 신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또 2017년부터 일부 점포에서 운영하던 코로나 등 여파로 잠정 중단한 AI 쇼핑봇 대신 네이버 ‘파파고’ 통번역 서비스를 백화점 애플리케이션(앱) 상에 탑재했다.

백화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닫혔던 하늘길 개방과 K-콘텐츠 관심이 큰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방문 외국인 수는 103만244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 대비 86% 수준으로 집계됐다. 백화점을 찾는 외국인 쇼핑객 수요 회복도 뚜렷하다. 올해 1분기 롯데백화점 잠실점 외국인 쇼핑객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올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게임서 목화 키우니 집으로 수건아…

유통가 ‘사이버 농사’ 인기 만점

체류시간 늘려 연계 매출 기대 내달 중 ‘이마트 팜’ 론칭 예고 등 오프라인 유통사도 경쟁 뛰어들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소비자 이정우(가명)씨.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수건을 배송받았다. 알리 앱의 가상 농장에서 목화를 키운 덕이다. 이씨는 수건에 이어 갑티슈를 받기 위해 매일 알리 앱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다. 고물가 부담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가운데, 가상공간에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 먹는 이른바 ‘사이버 농사’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다. 사이버 농부 고객이 늘면서 이커머스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사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달 중 자사 앱에 모바일 농장 ‘이마트 팜’을 론칭할 예정이다. 이마트 팜은 이마트 앱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 얻은 보상으로 열매를 키우고 수확한 후 이를 실제 상품으로 교환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서비스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비(非)게임에 게임 요소를 적용한 것을 말한다. 이마트는 현재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마트 팜을 테스트 중이다. 오프라인 유통사가 모바일 농장을 도입한 건 이례적이다.

그간 이커머스업체에선 모바일 농장서

비스가 활발했다. 클로버를 키우는 게임 ‘11클로버’를 지난해 론칭한 11번가는 최근 아기 고양이 육성 게임 ‘11키티즈’를 선보였다. 먹이와 간식으로 고양이를 육성하면 6년근 홍삼정, 프리미엄 육포 등을 비롯해 할인을 제공한다. 먹이와 간식은 11번가 상품 검색, 구매, 숏폼 시청으로 얻는다. 오픈 직후 3주차인 21일 기준 누적 접속횟수 934만 명이었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농장 게임에 적극적인 것은 고객을 계속 유입시킬 수 있고, 앱 내 체류시간을 늘려 연계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게임 참여 고객은 계속 증가세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1클로버 참여 고객은 79만 명 이상이었다. 이들은 11번가의 주요 전문관과 상품으로 이동해 매출을 일으켰다. 11클로버 오픈 직후 3개월 간 11번가 앱 내 슈팅배송의 일평균 상품 탐색 빈도도 전년 달인 10월 대비 412%가량 높았다.

작년 ‘마이컬리팜’을 론칭한 컬리도 효과가 뚜렷하다. 올해 2월 말 누적 기준 약 90만 명이 마이컬리팜을 이용했고 이 중 20만 명이 작물을 교환했다. 특히 게임 이용자는 비이용자 대비 컬리 앱을 4배 이상 더 많이 방문했다. 마이컬리팜으로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아보카도 등을 수확하면 실제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업체별 모바일 농장 게임 서비스 운영 ※출처: 각 사

이마트	이마트 팜 5월 공식 론칭. 출석체크, 전단 보기 등을 수행하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교환
11번가	클로버 기르는 11클로버에 이어 고양이 키우는 11키티즈 론칭
컬리	마이컬리팜 운영. 화분에 작물을 키워 수확하면 실제 작물 배송
알리익스프레스	평명농장 운영. 목화나 나무를 키우면 수건 또는 갑티슈 배송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

신한이 모든 순간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재생PC기부, 디지털금융교육
손주와 가르쳐주는 것처럼 쉽네~



한부모 취업 지원

엄마 사랑해! 우리 가족 화이팅



신한 아름인도서관

언니랑 책 읽으니까 진짜 행복해~



위기가정 재기지원

여보~ 희망이 보여요!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동부터 청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눔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나 죽으면...”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하는 신한은행

맞춤형 종합 솔루션 개발 착수

신한은행이 유언대용신탁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다 3조 원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 규모에 신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 고객을 겨냥해 유언이나 상속, 증여 등 입맛에 맞는 종합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종합재산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업체 지원을 이날 마감했다. 지원 업체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이후 13개월 간의 시스템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정상혁 신한은행장

사업자 선정後 13개월간 개발

‘S라이프케어...’ 시스템 보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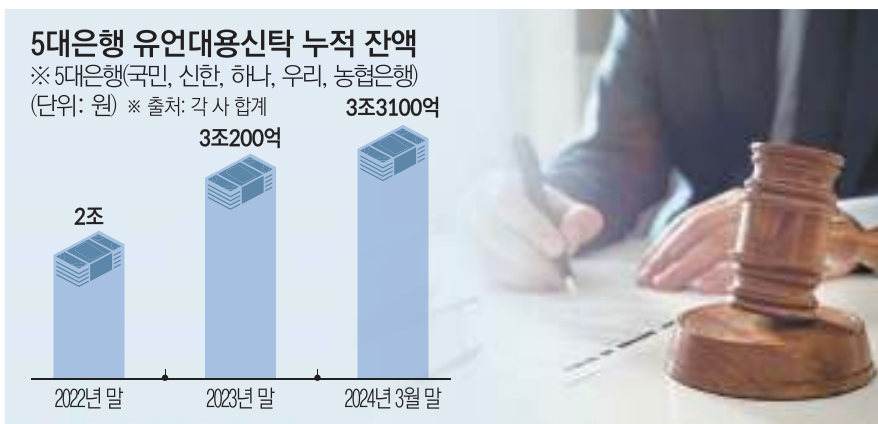
고령화사회 유언신탁 급증 대응

하나銀 ‘리빙 트러스트’ 시장 선도

국민·우리·농협銀 등도 운용

를 통해 수탁 자산 관리의 다각화를 통해 고객의 자산 관리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이라며 “다양한 재산을 하나로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유언대용신탁 누적잔액은 약 3조3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 2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12월 말 3조200억 원으로 1



년 새 1.5배 이상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S 라이프케어(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을 현재 운영 중으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보다 활성화 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겠다는 각오다. 사업내용은 크게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과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의 재산신탁 및 종합재산신탁 시스템 구축 두 가지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시키는 금융 상품이다. 별도의 유언장, 공증 작성 등에 따른 법률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인 간 유산 다툼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상담관리와 계약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다수 상속인 관리 및 상속 지급 스케줄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관리 (수익자 정보

등록, 상속 비율, 특약사항 등) 시스템 구축 △보고서 및 회계 결산 관리 (재무제표 정보 전송, 실무대사 정보 관리, 재산별 수탁고 집계, 고객 자산현황표, 보수취득 현황 등) 시스템 구축 등이다.

현재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하나은행이다.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자체 브랜드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출시했다. 이후 리빙 트러스트센터를 독립 부서로 운영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했다. 최근에는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라운지’를 열고 ‘유산정리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KB위대한유산신탁’을 비롯해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 중이다. KB위대한기부신탁은 신탁 계약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우리내리사랑 부동산신탁’을, 농협은행은 ‘NH All100플랜 사랑남김 플러스신탁’을 운용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이 22일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2214억 원 출연 협약을 체결한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김경남 국민은행 상무, 이형주 카카오뱅크 CBO, 문창환 기업은행 부행장, 조계준 광주은행 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재현 서민금융진흥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사진제공 은행연합회

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은행권, 서금원에 2214억 출연

출연협약 체결... ‘협력 지속 확대’ 은행 두번째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2000억 원 규모의 출연을 결정했다. 햇살론 뱅크, 햇살론15 등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하나, 신한, 우리, IBK기업, KB국민,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서금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지원 프로젝트다.

은행권은 서금원의 고유목적 사업 재원으로 2214억 원을 출연한다. 출연금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한다. 하나은행의 출연금이 6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404억 원), 우리(363억

원), 기업(254억 원), 국민(21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은행의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자원의 4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서금원 출연을 통해 리스크 관리로 인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중·저신용자에서 연체·연체우려 차주까지 아우르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은행권과 서금원 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 체결 후 각 은행 이사회 등 서금원 출연을 위한 내부의 결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출연을 집행할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 재원이 서민금융 지원에 내실 있게 활용되고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금원과의 상호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증시불안 속 IPO 봇물... “옥석가리기 심화될 것”

내달말까지 14곳 공모주 청약 ‘후끈’ HD현대마린솔루션 예상 시총 3.7조 1분기 대어 ‘에이피알’의 2배 훌쩍

기업가치 3조 원대 대어인 HD현대마린솔루션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잇달아 기업공개(IPO)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모가가 희망가 상단을 넘어서는 기업이 잇따르면서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300% 수익률을 내는 이른바 ‘따따블’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 상승)의 기대를 품은 소액주주들의 자금이 IPO 시장으로 쏠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총 14곳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됐다. 22~26일 디앤디파마텍, 민테크, 코칩, HD현대마린솔루션 등 4곳의 공모 청약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가 제작한 선박의에

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회사다.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3조 7071억 원으로, 1조5000억 원대였던 올 상반기 대어 에이피알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공모 규모는 7423억 원으로 지난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HD현대마린솔루션이 제시한 주가수익비율(PER)이 31.5배 수준으로 다소 높은 데다가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445만 주를 구주매출로 내놓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5월 둘째 주에는 일반 기업 3곳,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1곳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다. 같은 달 7~8일에는 씨어스테크놀로지, 아이씨티케이, 이노그리드, KB스팩28호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됐다. KB스팩28호(29~30일)를 제외한 기업들은 현재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5월 13~15일에는 노브랜드, 에스오에스랩가, 27~28일에는 하스 등이 일반투

자자 청약에 나선다.

신규 공모주 종목들은 수요예측에서 흥행을 거두는 중이다.

디앤디파마텍과 민테크는 이달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각각 848.50대 194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3만 3000원, 1만500원으로 확정했다. 코칩은 19일까지 수요예측을 마친 뒤 공모가를 책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올해 공모주 시장이 반등을 넘어 대세 상승기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따블’ 사례는 1월 상장한 우진엔텍이 유일하지만, 15개 기업(스팩 제외)의 상장일 증가 기준 수익률은 평균 123.73%에 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IPO를 진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라며 “당분간 공모주 시장 열기는 뜨겁겠지만,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CD 1년물 이자에 추가수익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이자에 ‘플러스’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장일은 23일이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CD 1년물 하루 치 금리를 매일 복리로 수익 반영하면서도 기존 금리형 ETF와 다르게 코스피 200지수가 하루 1% 이상 상승할 경우 연 0.5%(연환산)의 하루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

삼성자산운용은 2022년 4월

손민지 기자 handmin@



KODEX KOFR금리액티브 ETF를 상장하며 업계 최초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금리형·파킹형 ETF를 도입했다. 전체 금리형·파킹형 ETF는 순자산 2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커버드콜 ETF 3종 동시 상장

한투운용, 연건목표 분배수익률 15%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3일 연건 분배수익률 15%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동시 상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하는 3종 커버드콜 ETF는 △ACE 미국 500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 △ACE 미국빅테크 7+ 15%프리미엄분배(합성) ETF 등이다. 이들 3종 ETF 주요 기초자산은 미국 우량주 500개 기업,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미국 빅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업이다. 이 상품들은 연건 분배수익률 15%를 목표로 하는 월배당형 상품이다.

윤혜원 기자 hwyoon@

〈외화환산손실〉

ELS배상도 힘든데 ‘苦练율’… 은행권 ‘환차손’ 어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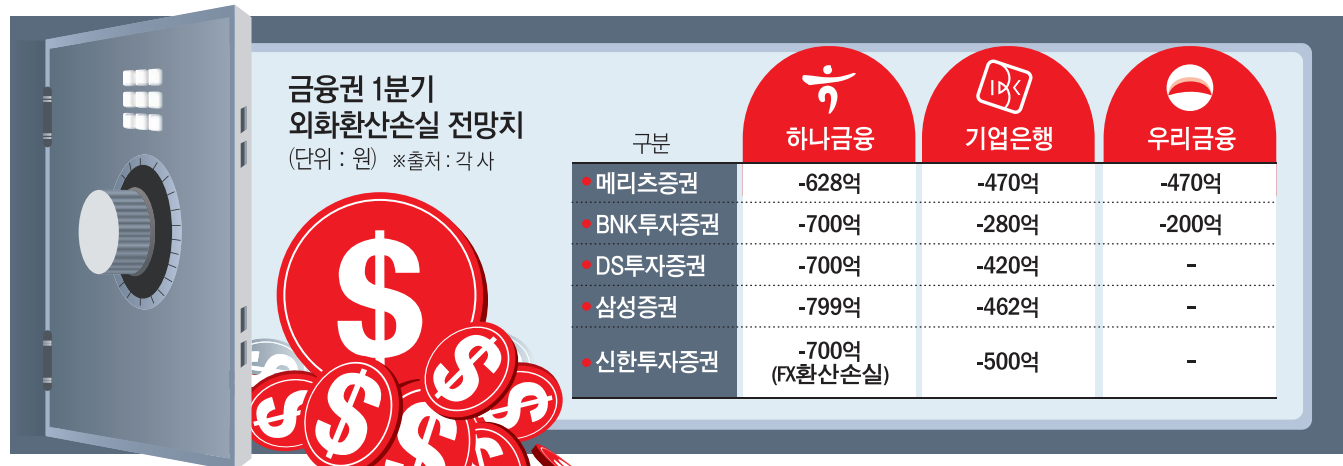
원·달러환율 올들어 7% 상승

10원 오를때 200억 회계적 손실
하나금융 800억 가까이 손실 반영
비이자이익 34%↓ 5121억원

4대 은행 1분기 실적 저조할 듯
신한금융 ‘리딩금융’ 탈환 전망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치솟으면서 일부 금융지주는 최대 800억 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사재의 원화 환산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나금융지주는 628억~799억 원, IBK기업은행 280억~500억 원, 우리금융지주 200억~470억 원 가량의 외화환산손실을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환산손익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원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회계상의 이익과 손실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부채의 평가액이 외화자산보다 증가해 손실이 발생한



다. 반면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이 생기게 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분기 대비 59원 가량 상승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환차손을 인식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628억 원,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은 각각 470억 원 가량 인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환차손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비이자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200억 원가량의 회계적

손실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1분기 비이자이익은 대규모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계정 대체효과 등에 따른 기고효과와 당분기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700억 원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감소한 5121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금융 또한 비이자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생 금융비용 370억 원과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200억 원 반영으로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

기 대비 11.1% 줄어든 2950억 원으로 추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만 7.3% 상승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연초 3개월 안에 7%를 뛰어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 거래일보다 3.0원 내린 1379.2원에 장을 마쳤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서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동 위기와 줄줄이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가 환율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달 25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금융이 26일 1분기 실적을 잇달아 발표한다. 4대 은행이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을 모두 1분기 실적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지배주주 기준 3조9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9015억 원)보다 18.8% 줄어든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4976억 원)보다 3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순이익은 1조2377억 원으로 리딩금융 타이틀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1조3880억 원)보다 10.8% 줄었지만, KB금융보다 2000억 원 앞섰다. 하나금융은 1조1022억 원에서 9062억 원으로 17.8%, 우리금융은 9137억 원에서 8176억 원으로 10.5% 감소가 예측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몸집 커진 법인보험대리점… 기업신용평가 낸다더니

GA사 4곳만 신청, 상반기 도입 ‘불투명’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신용평가 도입이 난관에 부딪혔다. 당장 영업력 강화가 절실한 GA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분석을 신청할 엄두도 못내고 있어서다. 당초 상반기 중 도입이 목표였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신용평가 분석을 신청한 GA사는 △지이에코리아 △KGA에셋 △영진에셋 △더좋은보험금융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사가 특정 기업을 분석해 신용도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량화된 지표로, AAA에서 D까지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회사 평가 수단 및 투자자의사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나이스신용평가와 함께 GA를 대상으로 한 기업신용평가 분석을 고안하고 있다. 이는 김용태 GA협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목표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국내 신용평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인 보험대리

평가방법 안와… 추가 모집중
중소형 GA사도 선뜻 참여 못해
“상장·투자유치 결립됨 안되게”

점의 기업평가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 평가 모델에 존재하지 않는 GA업권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해 질적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그간 설계사 조직의 규모만을 두고 가치를 매기던 단순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표를 통해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추산해 투자자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번에 비교해 판매할 수 있는 GA의 시장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지난 1월부터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4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평가방법론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사가 저조하다는 것. 최소 10개사 이상이 참여해야만 정확한 평가방법론이 나오는데 표본이 너무 적은 탓에 추가 모집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형 GA사들의 경우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데다, 경쟁이 치열한 영업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태에서 외부 평가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서다. 한 GA 관계자는 “현재 기업공개(IPO)나 자금조달 등 큰 이슈보다도 영업 자체에 몰두돼 있는 상황이라 신용평가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GA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가 결산 마무리 이후 GA 업계의 신용평가까지 신설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촉박한 것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사의 몸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IPO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거나 협회와 회원사 간 소통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신한카드, 싱가포르관광청과 여행호텔 서비스

공동 마케팅 추진 업무 협약

신한카드는 싱가포르관광청과 함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멜리사 오우 싱가포르 관광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

후 3년간 싱가포르 관광청과 함께 항공, 숙박, 쇼핑, 요식 등 여행 관련 전 업종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 추진에 나선다.

양 기관의 고객 기반 및 제휴파트너십을 활용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폭넓은 혜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호텔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사장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경제, 문화 교류 지원 등 다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문동권(오른쪽) 신한카드 사장과 멜리사 오우 싱가포르 관광청장이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카드

해외에서도 고객들이 차별화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제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jsw@



유통업과 손잡는 카드사 PLCC 경쟁 ‘앗 뜨거워’

국내 카드사들이 유통업계와 ‘동맹’을 맺고 활발하게 협업 중이다. 포화 상태인 금융시장을 넘어 충성 고객을 많이 보유한 유통업체 고객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내수 침체로 시련을 겪고 있는 유통사들 역시 각종 혜택으로 소비 심리 자극을 노리며 ‘원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카드를 신규 발급한 회원 수는 14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중 6개월 연속 1위

국민카드 ‘쿠팡 와우카드’ 작년 출시
신규발급 회원수 6개월 연속 1위에

브랜드 고객 흡수·수익성 개선 장점
유통사도 소비심리 자극 ‘원원’ 기대

다. 삼성카드에 밀려 2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10만9000명) 대비 30% 넘게 증가한 수치다.

국민카드의 신규회원이 급증한 이유는 ‘쿠팡와우카드’의 영향이 컸다. 쿠팡와우카드는 국민카드가 쿠팡과 제휴해 발급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은 온라인 커머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플랫폼 사업자로 본격 확장을 진행 중이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수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카드사들에게는 ‘황금알’ 사업자였던 셈이다. 쿠팡의 첫 PLCC 출시 소식에 국민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상위권 카드사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 경쟁을 벌인 배경이다.

카드사들에게 유통사와의 제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카드고릴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발급된 PLCC 상위 10종의 카드 중 절반은 유통 관련 업체와 제휴한 카드였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세계·CJ·11번가와 협업해 PLCC를 출시했고, 삼성카드는 신세계이마트와 손을 잡았다.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과 PLCC 사업에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NH농협카드도 11번가와 손잡고 ‘NH올원 쇼핑&11번가카드’를 내놨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TEMU)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도 카드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액은 2014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저가상품 공세를 펼친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해외 직구 규모를 견인한 것. 카드업

계가 중국 이커머스와 PLCC에 눈독을 들이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카드사 관계자는 “PLCC는 카드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없이도 제휴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고객을 흡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브랜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은 있지만 실적 외에 브랜드 방향성 등 다양한 부분이 PLCC 대상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이 PLCC를 도입하면 유통사들의 채널을 이용해 잠재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모집비용 감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갯비디아’에 벼락 맞은 개미… 삼전·SK하이닉스도 비상

〈엔비디아〉

지난주 14% 17개월래 최대 낙폭
AI·반도체 고점론에 차익 실현
하락 계속 땀 ELS 손실 불가피
삼성전자·하이닉스 소폭 하락

“학~ 하루에 10%대 하락 맞나요? 이러다 테슬라 꼴 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주가 그래프가 ‘갯비디아’ (엔비디아) 맞나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삼켰다.”
최근 온라인 주식 토론방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글들이 넘쳐난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9% 급락하는 등 뉴욕증시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경험 때문이다.
“믿을 건 엔비디아뿐”이라며 엔비디아와 반도체주에 투자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표정이 어두워 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로 글로벌 증시 랠리를 이끌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

19일 10%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까지 흔들고 있어서다.
◇서학개미도 비상 =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주(15~19일) 14% 하락했다.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최근 상승세를 탔던 AI와 반도체 주식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을 쏟아낸 영향이다.
네덜란드 ASML이 발표한 신규수주액이 시장 기대를 밑돌고 대만 TSMC가 시장 성장을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도 ‘셀(Sell) 엔비디아’를 부추겼다. AI칩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칩 제조의 대부분을 TSMC에 맡긴다.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도 커졌다.
지난달 8일 기록한 엔비디아의 신고가(974달러)와 비교하면 22.8% 하락하면서 녹인(Knock-in) 불안이 엄습한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주식형 ELS의 발행 금액은 1133억 원이다. 엔비디아를 단일 자산으로 하는 ELS의 발



행 금액만 45억 5000원에 달한다. 특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지난달에 발행된 엔비디아 단일 자산 ELS는 33억 원이 넘는 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손실 가능성이 있다.
서학개미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9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사들인 금액은 6만 6160달러다. 지난달 말(8만 1073달러)과 비교하면 1만 5000여 달러가 줄었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이어 해외주식에서 상위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영향 = 엔비디아의 주가 부진은 동학개미까지 떨게 한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93%, 0.98% 빠진 7만 6100원, 17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 여파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급등했던 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독점 공급을 하게 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업인 삼성전자도 하락했다. 세

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전망치를 전년 대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예상보다 부진한 점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더 하는 대목이다.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으로 향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3조 4023억 원 적자) 대비 흑자로 돌아선 1조 79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1분기 잠정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달 30일 정확한 실적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발 AI 쇼크로 해당 산업 성장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산업 내 경쟁 및 수요를 둘러싼 이들의 전망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김효숙 기자 ssook@

증권사에 못 갚은 돈 9806억… 반대매매 급증에 빚투 비명

〈위탁매매 미수금〉

2영업일 지나면 주식 강제처분
주가 하락 땀 개미 ‘피눈물’
“대외 악재로 단기 변동성 불가피”

미국 국제금리 상승과 중동 분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반대매매가 늘고 있다.
주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단타에 나섰던 이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대매매가 증시에 추가 악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50억~90억 원대를 유지하던 반대매매 체결액은 17일 172억 원으로 급증

했고, 18일도 102억 원을 기록했다. 19일 72억 원대로 체결액은 다소 줄었지만 증시 하방 압력이 큰 환경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최소한의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금액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뒤 빌린 돈을 2영업일 뒤까지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빌린 돈을 갚고도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증권사가 투자자에 빌려준 뒤 받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19일 기준 9806억 원으로 1조 원대에 육박한다.

미수금 규모가 적잖은 상황인 데다 대외 악재로 증시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상당한 규모의 반대매매가 추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는 국제정세와 시장 관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대응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 만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에 일으키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유가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정책 후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악화 요인”이라

며 “중동 리스크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해 상황별 대응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업종 실적 전망은 꾸준히 상향되겠지만, 속도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도 “실적 전망이 방향을 바꿔 하향되진 않을 것이며 수요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9조 6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17조 5370억 원에서 지난달 14일 19조 원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다. 이달 2일에는 19조 5327억 원까지 늘어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윤혜원 기자 hwyoon@



19일 김영성(오른쪽) KB자산운용 대표가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강서구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KB자산운용

시장 먹거리로 취약계층 나눔 KB운용 ‘상생 프로젝트’ 시작

KB자산운용은 4월부터 4개월간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KB자산운용과 함께 하는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 소비X상생 나눔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월 1회 잡곡과 고기, 과일 등의 상생 소비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먹거리 상자를 제작한 뒤 KB운용 봉사단이 상자와 함께 마음건강 안부카드를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직접 전달해 안부를 묻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 우려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KB운용은 결식노인 급식 봉사, 수해 피해 구호 물품 지원, 시각장애 아동 점자 책 기부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영성 KB운용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의 가치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이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이인표(네 번째)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 등 상장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거래소,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거래 시작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글로벌 지수 선물은 2022년 11월 18일, 코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출범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등 연계 상품 확대를 통한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기관·외국인 투자 규모 확대 필요성도 도입

배경이다. 현재 상장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KODEX 코스닥글로벌, TIGER 코스닥글로벌, KOSEF 코스닥글로벌 등이다.
거래소는 “기관·외국인이 선호할만한 코스닥 블루칩 기업에 대한 위험 관리 및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코스닥 투자 수요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호 기자 godot@

MBK, 의약품 유통사 ‘지오영’ 인수 지주사 지분 2조 ‘블랙스톤’서 사들여

블랙스톤, 韓서 두번째 엑시트
JP모건 출신 국유진 대표 주도
지오영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을 인수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MBK파트너스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보유한 ‘조선해지와이홀딩스’ 지분 71.2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지오영 지분 99.17%를 보유한 지주사다. 계약 규모는 1조 9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스톤은 이번 지오영 매각으로 아크플레이스에 이어 한국 내 두 번째 자산액



김병주 MBK 회장

시트(투자금회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블랙스톤의 지오영 매각을 주도한 인물인 국유진 대표다. 국대표는 2006년부터 3년간 JP모건의 글로벌 M&A 부문에서 경력을 쌓고 블랙스톤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 사모펀드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오영그룹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4386억 원, 영업이익 86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오영창업자인 조선해지 회장은 기존대로 회사에 남아 경영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조 회장은 조선해지와이홀딩스 지분을 21.99% 보유 중이다.
정희인 기자 hihello@

“보릿고개에도 미래 먹거리 챙긴다”…건설사 R&D 확대

시평 상위사 17곳 R&D 비용
지난해 1조1307억…26.6%↑
삼성 4759억·현대 1642억 순
증가율은 HDC현산 709% 최고

생산성 향상·기술 고도화 물론
UAM·수소 등 신사업 영역확장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연구개발(R&D)비를 늘리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기술 고도화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등 신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2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사 중 확인 가능한 17곳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연구개발비 총액은 1조1307억 원으로 전년보다 26.6%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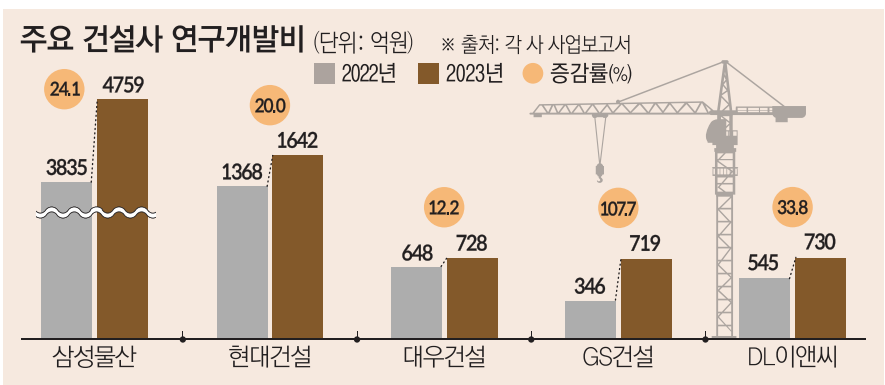
부분인 14개 건설사가 연구개발비를 늘렸다.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시평 1위인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전체의 40%가 넘는 475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89%에서 지난해 1.14%로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고중량 몰탈의 실용화를 통한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 향상 △동절기 양생용 스마트 열풍기 개발 △건설용 앵커 설치 로봇 실용화 △해체 철거공사 신공법 개발 등의 연구개발 실적을 내놨다.

현대건설은 두 번째로 많은 1642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현대건설은 중간소음 저감 등 건축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대를 연구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주요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H-모듈러 공동주택 프로토타입 개발 △UAM버티포트 비전 수립과 핵심 기술 발굴 △부유식 해상풍력 설계 기술 확보 및 요동저감



형 콘크리트 부유체 개발 △H-스마트시티 미래비전 수립 기획 △미래 건강주택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설 시공 현장 적용 가능 탄소저장 기술 발굴 및 평가 등이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EPC(설계·구매·시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기술은 물론이고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등에 관한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며 “디지털 현장관리와 건설 로보틱스,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

해 스마트 건설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350억 원 수준이던 연구개발비를 지난해 720억 원 정도로 두 배 이상 늘렸다. GS건설은 모듈러 주택 기밀화 시공과 UAM 버티포트 설계 기술 연구 등에 비용을 투입했다. 또한 DL이앤씨는 연구개발비를 2022년 545억 원에서 지난해 730억 원으로 33.8% 확대했고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409억 원)와 롯데건설

(347억 원), SK에코플랜트(285억 원)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22~28%가량 증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기능 확대와 고순도 니켈 정제 기술을, 롯데건설은 CO2 free 수소 생산 기술 개발, SK에코플랜트는 그린 수소 실증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태영건설(701억 원)과 계룡건설산업(31억 원), 금호건설(20억 원), 동부건설(243억 원) 등 중견건설사들도 30~40% 정도씩 연구개발비가 늘었다.

증가 폭은 HDC 현대산업개발(172억 원)과 코오롱글로벌(2억5500만 원)이 각각 709%, 292.3%로 두드러졌는데 기존 연구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영향이다.

아이에스동서는 2022년 28억9000만 원에서 지난해 15억5500만 원으로 46.2% 감소했다. 아이에스동서 연구개발비 중에서는 위탁운영비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전보규 기자 jbk@

압구정·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 잇따라 신고가 행진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요 재건축단지 몸값이 들쭉이고 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지난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지만,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규제를 비슷듯 연일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21㎡형은 지난 17일 47억6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기록을 썼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2020년 11월) 31억5000만 원보다 16억1500만 원 상승한 수준이다.

또 이 단지 전용 182㎡형은 지난 11일 직전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오른 71억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21일 69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집값이 2억 원이 났 셈이다. 앞서 신현대 12차는 전용 108㎡형에서도 지난달

수년째 유지…가격억제력 없어
“주택 거래는 제외” 목소리 높아

30일 42억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신고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또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목동과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핵심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4단지 전용 95D㎡형 지난 16일 20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1층 매물이지만 지난 2월 16일 전용 95F㎡형 7층 거래가격과 같은 수준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단지 1382가구 중 전용 95㎡형은 328가구지만, 이날 기준 해당 평형의 네이버 부동산 등록 매물은 총 3건에 그친다.

이 밖에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전용 101㎡형은 10일 직전 신고가(21억2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오른 21억6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이 평형은 지난해 6월 이후 거래가 없었지만, 약

10개월 만에 신고가 거래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수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가격억제력은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규제 적용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눌러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서울 내 개발계획을 고려하면 삼성역 일대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명분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재건축 특별지구에 용적률 완화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겹투자도 할 수 없다. 정용욱 기자 dragon@

5월 아파트 입주물량 2만2605가구…서울은 ‘0’

경기·인천 8238가구 36% 차지

4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감소했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5월부터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60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1만3561가구) 대비 67%(9044가구) 많은 것이다. 물량 자체는 전년 동기(2만380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달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급이 줄어들었던 영향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8238가구로 전국의 36%를 차지했다. 서울은 5월 입주 물량이 없다. 경기는 5675가구, 인천은 2563가구가 입주한다. 경기

에서는 오산(1713가구), 양주(1010가구), 안성(705가구), 평택(665가구) 등지에서 총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인천은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 등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1만4367가구(64%)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경남(4640가구)였다. 그 외의 지역은 전남(2305가구), 부산(2221가구), 강원(1516가구), 대구(861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자 입주 단지의 분양권 거래에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입주장의 새 아파트 관심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지은 기자 hje@

블룸에너지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사업

SK에코플랜트, 블라인드 펀드 조성 협약

MDM자산운용과 450억 규모

SK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발전사업에 특화된 블라인드 펀드 조성예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MDM자산운용과 함께 일반수소발전입찰시장(CHPS) 연료전지사업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MDM자산운용은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분야 대표기업인 MDM 그룹의 자산운용사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ESG 분야 등 미래가치가 높은 자산 발굴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에코플랜트와 함께 강릉연료전지·춘천연료전지·송산연료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45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고, 직접 참여해 금융지원타당성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펀드는 수소발전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사업 중 SOFC 발전사업의 후순위 차입금 및 자기자본 조달에



배성준(오른쪽)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과 장성수 MDM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에코플랜트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이 이뤄지던 기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장과 차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펀드를 활용해 SOFC 발전사업의 금융조달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년간 연료전지 사업 경험을 축적해 온 SK에코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노하우를 보유한 MDM자산운용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진리 기자 truth@

힐스테이트와 아티제가 만나면…

현대건설, 브랜드 컬래버 팝업

현대건설이 아티제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건설은 19일부터 21일까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힐스라운지에서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힐스테이트와 아티제만이 가진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 이벤트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입주자 사전점검행사의 하나로 단지 내 52층 스카이라운지 카페에서 열렸으며 아티제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스페셜 음료와 베이커리, 호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제공했다.

아티제의 시그니처 일러스트로 힐스테이트 생활을 표현한 거대한 동화책 포토월과 힐스테이트 별문, 아티제 곰인형 의자 같은 다양한 아오브제는 입주 예정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가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힐스라운지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포토월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건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대표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별한 주거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차원 높은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오세훈 “TBS 민영화 절차 도울 것… 피해자 없도록 노력”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폐기로에 선 TBS(교통방송)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찾을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선의를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간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TBS는 다음 달 31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지원금이 끊기고, 시 출연기관 지위도 해제된다.

현재 TBS는 민영화를 꾀하기 위해 새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달 1일 TBS는 삼정KPMG와 ‘TBS 투자자 발굴 용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밝혀

내달 31일 이후 市 지원금 끊겨
출연기관 지위 해제… 존폐 위기

오 시장 “인수 가능 언론사 찾도록
시간적 여유 꼭 필요한 시점” 강조

역’ 계약을 맺으며 △TBS 투자유치 환경 검토 △TBS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처 발굴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로 계획했다.

오 시장은 TBS와 관련해 시의회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민영화 절차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TBS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거나 TBS를 폐국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TBS의 자구책 발표 이후 민영화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이 같은 작업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의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디오 주파수가 없는 방송사들에 (TBS 인수를) 고려해 보면 어떻냐고 말씀드렸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인수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오는 언론사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

오 시장은 “TBS가 시간을 좀더 확보하고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유예해서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에도 다시 한번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TBS는 외부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자 발굴을 통해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TBS 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 연장을 요청했다. 노조는 “TBS가 폐국된다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라며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단죄로 폐국까지 이른 비운의 방송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현재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대로 복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하는 것보다 아예 폐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단기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부산 첫 모내기

22일 부산 강서구 죽동동 들녘에서 농부 김경양씨가 농기계를 이용해 올해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올해 모내기는 잦은 비와 함께 일교차가 심한 날이 많아 지난해보다 8일 늦게 시작됐다.

연합뉴스

법원 “퇴역 장교 근무 성적 비공개는 위법”

前대위 인사검증조 조사결과 요청
육군 “연구·개발 지장준다” 거부
法 “본인 정보 알권리 있어” 판결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소속대위였던 A 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13년간 복무한 뒤 2020년 퇴역했다. 이후 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생활하던 2018년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육사 측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2023년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육사 측은 A 씨가 이미 3년 전에

퇴역했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육사 측과는 달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육사 측의 A 씨의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 씨의 청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관자, 조사관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 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 씨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박꽃 지자 pgot@

1인 가게 사장님도 240만원 출산급여 받는다

〈최대〉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최대 24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후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후가 지원금을 통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내 자영업자는 총 81만 5000명으로,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는 51만 6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카페, 네일샵, 헤어샵, 사진촬영샵, 베이커리샵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했다. 이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

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는 출산 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

서울시, 내년부터 시행기로
프리랜서 임산부도 포함
배우자 추가 80만원 지원

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후가 지원금’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후가 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세계 책의 날’ 맞아 전국 독서문화 행사 봇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린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 책의 날’은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 23일에 서거한 역사에서 유래했다. 유네스코는 1995년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

우선 이날 광화문 세종라온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유인촌 문

체부 장관과 배우 황정민이 함께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낭독한다. 유 장관은 배우 시절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한 바 있다. 황정민도 ‘리처드 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 작품과 인연이 깊다.

또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도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예정이다. 송석주 기자 ssp@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신동빈 회장, 스노보드 유망주 최가온 치료비 지원 동계스포츠계 ‘키다리 아저씨’

스위스 월드컵 도중 허리 부상
수술·치료비 7000만원 전액

스키협회장 역임 남다른 애정
롯데그룹 10년간 회장사 전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 동계스포츠계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묵묵히 하며 설상 종목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드러냈다. 2026년 동계올림픽 메달(스노보드) 유망주인 최가온 선수의 치료비 전액을 신 회장이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2일 대한스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스키연맹(FI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우승한 최가온 선수가 수술·치료비 지원에 대한 감사편지를 신 회장에게 보냈다. 최 선수는 지난해 12월 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우승, 한국 선수로는 2021년 이상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스키 종목 월드컵 챔피언이 됐다.

그러나 스위스 월드컵 대회 도중 허리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올해 초 열린 청소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2008년생인 최 선수는 당시 스위스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거액의 수술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노보드 유망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신 회장은 최 선수의 치료비 7000만 원 전액을 쾌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선수는 현재 다음 시즌 복귀를 위한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우승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는 최가온 선수. 연합뉴스

신 회장의 동계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애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11월 대한스키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8년까지 협회장을 역임했고 롯데그룹이 10년간 회장사를 전담하는 등 동계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선수권과 청소년올림픽, 주니어세계선수권, 월드컵 등에 다양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힘을 쏟는다면 2022년에는 스카·스노보드팀을 창단해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에도 나섰다. 신 회장의 이 같은 후원은 동계스포

츠에 대한 그의 오랜 애정에서 비롯됐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아마추어 스키 선수로 활약하는 등 스키 애호가인 신 회장은 불모지인 국내 설상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올림픽과 유스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힘을 쏟는다면 호텔롯데 소유인 일본 아라이리조트를 국가대표 전지훈련지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성공리에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에도 그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신 회장은 당시 FIS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시설현황과 준비상황을 직접 소개하는가 하면 한반도 안보 이슈로 불안해하는 각국 선수단 파견과 관련해서도 각국 관계자에게 일대일로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가를 요청했다. 또한, 국내 첫 메달 달성을 위해 설상 스포츠 강국인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키협회 등과 MOU를 맺고 기술·정보 교류에도 힘썼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해 한국 설상 종목은 2016년 2월 릴레함메르 동계유스올림픽 금메달,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역대 최고 성적, FIS 스노보드 월드컵 첫 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첫 설상 종목 메달 획득(스노보드 은메달) 성과를 냈다. 이어 가장 최근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설상 스키 종목 기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복합 수요 맞춤형 종합 솔루션
신보 ‘이노베이션1’ 출시 행사



신용보증기금이 복합수요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솔루션 ‘이노베이션1’을 정식 오픈하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노베이션1은 신보에 축적된 기업분석 노하우와 인공지능(AI)분석시스템 ‘BASA’를 기반으로 기업의 복합적인 니즈를 진단하고, 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정책지원사업까지 코디네이팅해 기업을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하는 ‘기업형 PB서비스’다.

최원목(사진 가운데) 이사장은 “이번 이노베이션1 정식 출시로 여러 기관에 산재한 기업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복합적인 니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신용보증기금

‘더 빅토리’ 슬로건 아래...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



신한라이프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4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더 빅토리(THE VICTORY)’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시상식에는 영업가족과 임직원 등 약 1400여명이 참석했다. 영예

의대상 수상은 △TFC채널 정인택, 오정훈, 유일영 △LFC채널 김순진, 김현경, 조용수 △하이브리드채널 김민정, 강제희, 박종진 △세채널 이은주, 박유정, 천홍희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설계사와 영업관리자가 차지했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신한라이프

DB손보 연도상 시상식... 최명임 PA, 2년 연속 판매왕

DB손해보험은 일산 킨텍스에서 프라임에이전트(PA)와 임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DB손해보험 연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왕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부산사업단 최명임(사진 오른쪽) PA가 수상했다. 1994년부터 성실한 영업활동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최명임 PA는 작년 장기 신계약 건수 1008건으로 전년도의 774건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



며 회사를 대표하는 판매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DB손해보험

“이머징 메모리로 세대초월 가치 창출”

이재연 SK하이닉스 부사장

“AI 열풍, 메모리 반도체 큰 기회
사람 뇌 모방 ‘시냅틱’ 연구 진행”



“다음 세대 기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머징 메모리(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기존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컴퓨팅에 대한 기반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연구 개발의 성과를 앞당겨 회사가 기술 리더십을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사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22일 SK하이닉스 뉴스룸 인터뷰에서 “최근 챗GPT로부터 시작된 AI 열풍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큰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24년 임원 인사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연구·개발하는 조직인 ‘글로벌 RTC(Revolutionary Technology Center)’의 신임 임원으로 선임됐다.

이 부사장은 반도체 다운턴(하강 국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실리온관통전극(TSV) 기술처럼 미래를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사장은 “TSV는 AI 시대를 예견하고 개발한 기

술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미래를 대비해 또 다른 멋진 요소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AI 반도체인 시냅틱 메모리 분야의 연구역시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AI 연산 시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ACiM 역시 우리의 연구 분야이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CiM(Analog-Compute in Memory)은 컴퓨팅과 메모리 사이의 경계를 없애는 차세대 AI 반도체를 위한 기술이다.

송영록 기자 syr@·사진제공 SK하이닉스

트럼프 지난달 법률 비용 55억원 지출...하루 2억꼴

바이든에 선거자금 크게 뒤져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법률 관련 비용으로 400만 달러(약 55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캠프와 외부 정치단체는 지난해 초부터 법률 관련 비용으로 6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4만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에만 쓴 비용이 400만 달러가 넘었다.

이는 트럼프 측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비용은 올해 11월 접전이 예상되는

경쟁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재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측은 3월 말 기준 9720만 달러의 현금 보유를 보고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만든 리더십 팩(PAC·정치활동자금위원회)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여러 공동 모금 위원회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의 자금이 포함된다. 반면 바이든 측은 지난달 선거 캠프,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기타 여러 기금 모금 기관을 포함해 거의 1억9300만 달러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국장급 국회사무처 파견 정외중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미래전략감사국장 강민호 ◇과장 신규 보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용익 △공공경제회계감사국 제2과장 채정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종관 △심의실 감사 품질담당관 이철성 ◇과장 전보 △산업·금융 감사국 제1과장 구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이지웅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박환대 △과장급 국군방첩사령부 파견 장수영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오영민 ◇과장급 전보 △

화학사고예방과장 이지운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부단장) 임동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물류정책관 김근오 ◇과장급 전보 △생활교통복지과장 신보미 △물류정책과장 최정민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정민오
◆수협중앙회 ◇팀장급 △수산중대재해지원팀장 이상길 △대외협력팀장 이우승 △사회사지원팀장 조윤형 △정부비축사업단장 양재명 ◇부장급 △판매사업부장 겸직 경제기획부장 주규현

◆민들레 △최고재무책임자(CFO) 유상규

부음

▲이윤규(전 SH건설 대표이사) 씨 별세, 박인숙 씨 남편상, 이종훈(SH건설 본부장)·지현·종명(스키아 대표) 씨 부친상, 김용남(미래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씨 장인상 = 2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031-787-1503
▲정옥자 씨 별세, 김영정(NH투자증권 투

자정보부장) 씨 장모상 = 22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24일, 02-857-0444

▲오홍섭(전 성주초등학교 교감) 씨 별세, 박정규 씨 남편상, 오미선·세욱(전 은평소방서 녹번안전센터장)·미용·청민(삼성물산 배트법인장)·미정 씨 부친상 = 22일, 서울삼성의료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20

이승현 칼럼



주필

과학소설(SF) '삼체'를 읽은 소감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좀 과한 찬사라는 생각도 들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다뤄진 '삼체' 스케일이 큰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삼체 문명의 침공 함대가 400년 후에 도착한다는 기본 설정만 봐도 그렇다.

과학계 예언자들이 선호하는 시간 간격은 다르다. 400년이 아니라 20년 안팎이다. 인공지능(AI)의 획을 그은 1956년 미 다트머스대학 학술회의가 좋은 예다. AI가 처음 공식 언급된 그 회의의 과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20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후 '언제 등장할지'를 다룬 보고서 95건의 주장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외 없이 "15~25년 사이"로 수렴됐다. 미국 로봇공학자 로드니 브룩스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세계 학술지에 AI논문을 게재한 과학자 2778명을 대상으로

'초인적 AI가 언제 나올지'를 물어 올해 초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도 대동소이하다. 예측의 평균값은 2047년으로 나왔다. 앞으로 23년 후다.

그런데, 왜 20년 안팎일까. 영국 옥스퍼드대의 미래학자 닉 보스트롬이 내놓은 걸출한 해석이 있다. 보스트롬에 따르면 20년 후보다 먼 시점에 관한 예측은 사람들의 관심이 확 떨어진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 반면, 20년보다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측은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7년 후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큰소리쳐서 이목을 끌었는데 여전히 땅바닥만 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20년이다. 적어도 그 기간엔 평판과 경력이 유지된다. 20년 후의 대중은 오류에 관대할 수도 있다. 일종의 답이다.

예언·예측의 기본 문법이 이런 만큼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AGI)'이 곧 등장한다는 호언장담이 최근 속출하는 현상에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다. 시간 간격은 멀어도 5~6년이고, 가깝게는 내년이다. 호랑이 간을 삶아먹었는지, 여간 대답하지 않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인터뷰를 통해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로 AGI를 정의한다면 아마도 내년 혹은 2026년에 개발될

“AGI가 곧 나온다”는 장담의 시대

것"이라고 했다. "AI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유사한 관점이다. "5년 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이점이 온다'를 쓴 레이 커즈와일이 최근 참석한 국제회의에선 과학자 150명 중 약 20%가 초

‘선무당’ 예측은 경계해야 하지만

AI기술력이 국력 가를것은 분명해

투자·법제 총점검 변곡점 대비해야

인적 AGI가 나올 일은 아예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그런 AGI가 나온다 해도 100년 이후일 것이란 회의적 답변도 수두룩했다. 극단값을 택한 머스크 등이 자본 확충을 중시하는 사업가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다. 무책임한 예측에 부화뇌동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어제 1.45% 급등 마감한 코스피에서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종목은 대체로 죽을 췌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각각 1.93%, 0.98% 하락을 면치 못했다. 선무당 경계론을 뒷받침하는 '사소한 일상사'일 것이다.

하지만 대세는 대세다. AI 기술력이 앞으로 국력을 가를 개연성이 많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일한 물 분자가 물리적 배열이 달라지면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나 고체가 될 수도 있다. 상전이(相轉移)다. AI 분야에서 언제라도 상전이의 순간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적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AI 반도체 아니셔티브' 청사진을 내놓았다. AI 투자를 통해 미국, 중국과 더불어 G3(주요 3개국)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2027년까지 9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제법 의욕적이지만 이 정도로 족한지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제 정비 등 다른 차원의 과제도 수두룩하다. 이 또한 총점검이 필요하다.

SF '삼체'에서 삼체 문명은 인류에게 "너희는 벌레다"라는 충격적 메시지를 보낸다. SF만의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 역사적 승부를 가르는 산업혁명과 같은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눈부터 크게 떠야 한다. 먼 훗날 후손들이 험한 꼴을 면하려면 적어도 20년 후는 내다보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나.

trala2023@

‘지속’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중국계 이커머스, 그중에서도 테무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 뜨거운 정도를 넘어 충격이다. 테무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이커머스인 핀둬둬의 자회사이고, 핀둬둬는 동종업계의 강자인 알리바바보다 시가 총액이 크다.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 글로벌 이커머스가 선진국 시장을 휩쓸다가 한국과 동남아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 큰 회사가 한국 경제에서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경쟁하겠다고 한다. 만 원 한 장으로 부자처럼 살기엔 걱정이 너무 크다.

품질미달 업체와도 계약·최저가 고수

테무는 중국계 이커머스 중에서도 가격 하나만 큰 경쟁기업을 압도한다. 초저가 상품이 가능한 이유는 공급망과 유통망에서 독특한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초저가 상품은 제조업체를 쥐어짜는 과정에서 탄생했다(파이낸셜타임스 2024년 2월 13일). 테무는 경쟁업체인 쉬인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쉬인은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를 감독하고, 기준에 미달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판로를 잃은 업체에 테무가 접근하여 더싼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맺는다.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서도 테무는 공격적이다. 쉬인은 성실한 공급자에게는 물품대금 지급을 신속히 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테무는 협조적인 공급자에게는 다른 공급자에 배정된 물량을 넘겨준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잘 팔리면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초과 물량을 배정한다. 공급업자를 철저하게 '을'로 관리하는 전략이다.

둘째, 테무는 변형된 소비자 직접판매(Direct to Consumer, DTC) 방식의 유통망으로 가격을 한 번 더 낮췄다. DTC는 중간상을 없애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DTC는 이전부터 다양한 이커머스가 사용한 방식이지만, 테무는 초저가를 위해 그 방식을 달리했다(포브스 2024년 2월 13일).

DTC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공급자가 입점해 있는 쇼핑몰 특성상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가 신뢰성을 갖는지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처음에는 광고에 이끌려 상품

시론

최 의 현

영남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을 구매하더라도, 점차 신뢰하는 브랜드가 생기면 광고가 없어도 그 브랜드를 재구매하게 된다. 이커머스 측에서는 이 과정에서 광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려고 한다.

하지만, 테무는 초저가를 위해 자체 브랜드를 포기했고, 입점 업체가 브랜드화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품질 대신 가격을 우선시하는 전략인데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광고비 압박이 오기 전에 초저가로 시장을 지배해야 테무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언젠가는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초저가 오래못가·성급한 규제 자체를

한편,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테무를 비롯한 중국계 이커머스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금년 1분기 중국 경제는 예상치를 웃돈 5.3%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투자 독려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증가율은 4.7%, 여전히 약세이다. 공장을 돌려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국내 판로는 막혔다. 해외덤핑 수출이 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이 수입 규제 조치를 할 만도 한데 그러기엔 미국 물가가 너무 높게 걸린다.

국내에서 공론화된 중국계 이커머스의 문제점은 이들이 이미 진출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모두가 해결책을 골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깃발을 흔들 필요는 없다. 초저가 소비와 가성비 소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걱정거리 중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사필귀정’ 되새기는 코인업계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가수 지드레곤이 지난해 11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SNS에 해당 사자성어를 게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2022년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 '사필귀정'을 SNS에 게시했다. 현재까지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내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이 나올 때마다 '사필귀정'을 mim처럼 사용하곤 한다.

지난 주말 남부지검이 지난해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국내 가상자산 예치업체 텔리오의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다.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발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도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옳은 이치(正)'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해당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누구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향후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게 될지 등 사태가 옳은 이치를 향해가는 것은 그 무

노트북 너머

이 시 온

미래IT부 기자



엇보다 중요하다. 업계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하는 이유다.

테라루나 사태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반응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사필귀정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권 전 대표의 송환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송환보다 미국 송환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권 대표가 국내보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한 미국에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건사고가 옳은 이치로 돌아가는 것은 업계에도 중요하다. 피해를 일으킨 주체에 대한 올바른 처벌이 있어야만, 투기성과 도박성 이미지가 강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정작용과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 래야만 투자자로서 이미지 개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사필귀정'을 통해 한 걸음씩 옳은 이치로 나아가길 바란다. zion0304@

이투데이, 말투데이

☆ 척 피니 명언

"인생이란 균형점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일, 가족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맨손으로 일군 8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의 거부(巨富)를 생전에 몽땅 사회에 환원한 미국 기업가. 세계 최대 면세점 DFS 창립자다. 거부였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평범한 아파트를 임대해 부인과 함께 노년을 보냈다. 노후생활과 5명의 자녀를 위해 남겨둔 자산은 고작 200만 달러(약 27억 원)였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31~2023.

☆ 고사성어 /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례한 태도가 됨을 뜻한다. 좋은 평가나 칭찬을 받았을 때 과한 겸손으로 응하

는 것은 도리어 예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이루장(離婁章)에 나온다. "대인은 예(禮) 아닌 예와 의(義) 아닌 의를 하지 않는다[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弗爲]"라는 말에 대해 송(宋)대 학자 정자(程子)는 "공손한 것은 본래 예지만 지나친 공손, 즉 과공(過恭)과 같은 행위는 예가 아닌 예[恭本定禮過恭非禮之禮]"라고 풀이했다.

☆ 시사상식 / 버거 코인(Burger coin)

해외에서 발행했으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를 지칭한다. 한국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인 김치 코인과 구분된다. 그간 김치 코인은 시세 조종에 취약하고 유통량 등의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치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외면하자, 해외에서 발행된 버거 코인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졌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100년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

“여우가 호랑이의 허리를 끊었다.” 올해 첫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파묘’를 관통하는 대사다. 영화는 한반도를 강탈한 일본(여우)이 한반도(호랑이)의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허리)에 쇠말뚝을 박아 정기를 끊으려 했다는 설(說)에 집중해 즐거리를 이어간다. 영화 속에서 드러난 쇠말뚝은 참으로 ‘험한 것’이며, 그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일본이 애써 끊으려 한 한반도의 정기를, 최소한 우리 기업의 최근 현실에 빗대보면 허리가 끊겼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한 기업의 역량만으로 뽑아내기 힘든 험한 것들이 우리 경제상황 곳곳에 박혀있는 탓이다.

일본에 비해 유독 아쉬운 것은 한국에선 ‘100년 장수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로 창업 100주년을 맞은 일본 기업은 2519곳에 달한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올해 누적 4만5000곳을 돌파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들 100년 기업에 대해 “세계 대전과 대공황, 간토 대지진, 오일쇼크, 버블경제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대지진,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100년 기업은 흔히디흔하고 200주년(6개), 300주년(5개), 400주년(8개) 기업이 놀랍지 않은 일본에선 ‘1000년 기업’만큼은 화제다. 올해는야마나시현의 불교용품전문점 수미야신불구점까지 총 8개의 1000년 기업이 탄생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1~5위가 모두 일본에 있는 것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반면 한국 기업 중 100년이 넘는 기업은 2022년 기준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신한은행 등 14개에 불과하다. 올해 창립 100주년인 하이트진로와 삼양그룹을 합쳐도 16개 남짓이다. 하이트진로 임원은 최근 만남에서 “한국에서 100년 기업 탄생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0년은커녕 100년의 업력을 유지하기까지 그 명맥을 끊는 험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탓이다.

대표적으로 험한 것은 바로 ‘상속세’다. 기업

데스크 서각

석유 선
생활경제부장



승계를 하고 싶어도 “3대에 걸쳐 상속세 3번 내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세계적으로 높다. 물론 일본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55%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오너의 선택은 다르다. 한국의 기업 오너는 상속세 부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폐업이나 매각을 택하지만, 일본은 상속세 부담에도 가업을 이어간다.

이런 차이는 일본의 상속세 부담 완화 조치에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다. 2009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완화법’을 제정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했다. 2018년에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 특례

조치를 10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일본의 장수기업 문화는 선대의 가업을 후대가 승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일본기업 특유의 장인정신도 한몫을 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 독일보다 승계 사전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입을 모은다.

4·10 총선을 기점으로 상속세 완화가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100년 기업의 긍정적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장수기업은 오래 쌓은 경영 노하우를 계승·발전시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신산업 발굴,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순기능을 한다. 장수기업을 막는 험한 것을, 부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발휘해 제거하길 바란다. 이에 화답해 오너 경영인들도 혁신 기업가정신, 사업보국(事業報國)의 대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heystone@

日本 백년 많고 천년기업도 있는데 한국 가혹한 상속세에 대물림 포기 새 국회서 머리맞대 결립돌 없애길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을에 치매로 투병 중이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낮아졌음에도 혼자 살기를 고집하셨다.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입원을 권하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부하고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랐다.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할머니는 집에서 죽음을 맞았다. 가족들과 연고가 없던 할머니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었고 이웃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로 하였다.

할머니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오히려 좋은 죽음이라 생각이 들었다.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됐음에도 할머니는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던

곳에 있기를 바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비록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준 이웃 덕분에 고독사가 아닌 온전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

만약 할머니의 뜻에 반해 요양시설, 혹은 병원으로 입원했다면 할머니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치매 끝에 건강이 악화되면 대형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다.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의 의사를 알 수 없기에 임종이 다가오면 연명의료조치가 들어갔을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받다 홀로 쓸쓸히 죽을맞을 것이다.

결국 죽음은 같지만 이웃의 관심과 돌봄 덕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삶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었다. 좋은 죽음은 이처럼 좋은 돌봄에서 출발한다.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사설

‘보장 강화’ 연금… 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했다.

기금 고갈보다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택일 결과가 나온 것은 아쉽다. 다만 기금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만 59세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민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가깝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6.2년이었던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여명은 2021년 21.59년으로 5년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줄곤 9%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기간이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는 국민연금공단 분석도 있

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공간은 밀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의미하다.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밀 빠진 독을 밟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에 있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74%인 이탈리아의 보험료율은 33%다. 60%인 프랑스는 28%다. 그들이 노후에 더 많이 받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뻗한 판국에 시간 낭비만 할 순 없다.

도심 녹색공간은 ‘생물의 오아시스’

과학세상

이 난 영

과학칼럼니스트



며칠 전 대학 선배 SNS에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가로수 사진인데, ‘깍두기 머리’ 스타일로 가지치기 당한 모습이었다. 참 흉하기도 하고, 가지를 속아내고 길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선배 말마따나 ‘수격(樹格)’을 지켜줘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일인 줄은 알지만 잔가지들이 모두 잘려 문푹해진 나무를 보는 건 좀 그렇다. 붉은 흙이 다 드러나도록 깔끔하게 정리된 단지 내 화단 역시 마찬가지다. 그저 한낱 잡초로 여겨져 뜯겨진 그 풀들이 ‘어떤 생명체에게는 따뜻한 집이었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인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언짢다.

단지 내 ‘육생비오톱’, 다양한 곤충들 삶의 터

조경이 훌륭한 아파트 단지 안이나 관청 주위에 ‘육생비오톱’이란 뜻말이 서있는 경우가 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bios)와 땅 혹은 영역을 의미하는 토포스(topos)의 합성어다. 다시 말하자면 육생 비오톱은 육지에 사는 생물의 서식지를 뜻한다. 유사한 생태보호 공간으로 ‘수생 비오톱’ 즉 생태 연못도 있다. 여기엔 이런저런 물고기가 살거나 도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올챙이, 소금쟁이 따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요즘은 도시에서도 녹색공간을 찾는 게 아주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생물종이 풍부한 자연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된다. 최근 독일에서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한 생물종이 산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베를린의 아들러게슈텔(Adlergestell)이란 특정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된 곤충 동물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곳에 무려 45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는 멸종 위기에 속한 곤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아들러게슈텔은 베를린에서 가장 긴, 왕복 10차선 도로이다. 이곳에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좁은 화단이 도로 방향으로 길게 조성돼 있다. 차량들이 뿔어나

는 배기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 여름이면 차도에서 올라오는 막대한 지열이나 한겨울 추위와 바람 때문에 생명체가 견뎌낼 만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껏해야 파리나 개미, 벌 몇 종만이 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모니터링 첫 해에만 근 11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곤충의 서식이 확인됐다. 아마도 교체된 토양과 태양 열복사선이 이곳을 원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식이 가능해진 걸로 추측된다. 여기에 사람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것도 한몫한 걸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반복 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진 땅이 아닌란 의미다.

녹색공간 정비, 깃들어서는 생물 고려해야

대로 한 가운데 화단이 생물다양성 보존의 잠재력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니 여러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녹색 공간의 정비는 인간 눈에 비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곳에 사는 생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조경과 관련해 좀 고쳤으면 하는 걸 꺼내본다.

일례로 겨울로 접어들면 단지 내 화단에는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들어 지저분해 보이는 꽃이나 풀을 모두 뽑고 베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 붙어 동면을 취하는 곤충들도 있으니 추운 계절에도 풀을 조금은 남겨 두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자주 또 지나치게 짧게 제초를 하는 것도 역시 곤충 동물군의 생활 공간을 뺏는 행위다. 제초 간격을 좀 늘리거나 부분 제초로 곤충이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I에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지!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LG의 AI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 님

